

研究報告 91
1984. 12.

低所得漁村 育成方案

朱 尤 一(責任研究員)

辛 英 泰(研 究 員)

金 正 鳳(研究助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漁家所得은 他部門所得에 비하여 저위에 있으며 漁家內에서도 低所得漁家が 상당수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漁家所得의 增大는 물론 균형있는 漁業發展을 위해서도 低所得漁家の 所得增大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 이러한 低所得漁家の 所得增大를 위한 지원에는 效率性은 물론 公平性도 증시하여야 하며 支援方式도 個別漁家에 대한 개별적 지원보다는 低所得漁村의 育成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漁家所得 자체가 복합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관계로 지원의 내용도 漁業뿐만 아니라 漁業外所得事業까지 包含되어야 할 것이며, 低所得漁村이라 하여도 海域別, 立地類型別로 立地與件 및 經濟活動狀況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本研究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먼저 漁家所得決定要因을 분석하여 漁業階層別로 어떤 部門에 참여하거나 支援하는 것이 漁家所得增大에 바람직할 것이냐를 살펴 보았다. 다음 本分析 結果의 地域別 우선 적용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要因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금후 低所得漁村育成을 위해서 어떤 事業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끝으로 本研究를 맡아 수행해 주신 當研究院 水產經濟室 職員 여러분들과 本研究에 필요한 資料蒐集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農水產部 水產統計擔當官室 및 電算室, 水產廳 協同組合課, 水協中央會 새마을指導部 職員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生業에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本研究 擔當者들의 現地調査에 흔쾌히 응해 주신 漁民 여러분들께 이 글을 빌어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本研究結果가 금후 低所得漁村育成方案樹立 및 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基礎資料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84.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目 次

머 리 말

第 1 章 序 論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內容 및 方法	8

第 2 章 漁家所得의 口 態

1. 漁家所得의 水準	6
2. 漁家所得의 構造	9

第 3 章 漁家所得 決定要因

1. 主要項目間 相關度	16
2. 漁家收入과 漁家所得	19
3. 漁業收入과 漁家所得	21
4. 漁業生産量과 漁家所得	23
5. 漁業勞動投下量과 漁家所得	25
6. 漁船噸數와 漁家所得	27
7. 漁家支出과 漁家所得	28
8. 農業收入과 農業所得	29
9. 農業勞動投下量 및 農業支出과 農業所得	31

第 4 章 高低所得 漁村間 所得隔差要因

1. 立地與件	34
2. 漁業參與 程度	38
3. 漁業施設 程度	40

4. 漁業外所得事業 參與程度	48
5. 所得事業 支援程度	59

第 5 章 低所得漁村 育成方窠

1. 低所得漁村育成의 基本方向	71
2. 低所得漁村育성을 위한 重點推進 方案	77

表 目 次

第 1 章

表 1-1 所得水準別 漁村契數, 1982	5
------------------------------	---

第 2 章

表 2-1 漁業階層別 漁家所得의 變動	7
表 2-2 部門別 所得變動	8
表 2-3 韓國漁家와 日本漁船漁家의 所得比較	9
表 2-4 漁業階層別 漁家所得 構造 變動	10
表 2-5 部門別 所得構造의 變動	11
表 2-6 農漁家의 收入 및 經營費 變動	12
表 2-7 農漁家의 事業外所得 變動	13
表 2-8 日本漁船漁家의 主要事業外所得 變動	14

第 3 章

表 3-1 主要項目間 相關度 分析	17
表 3-2 漁家收入과 漁家所得의 分析結果	20
表 3-3 漁業收入과 漁家所得의 分析結果	22
表 3-4 漁業生産量과 漁家所得의 分析結果	24
表 3-5 漁業勞動投下量과 漁家所得의 分析結果	26
表 3-6 漁船屯數와 漁家所得의 分析結果	28
表 3-7 農業收入과 農業所得의 分析結果	30
表 3-8 農業勞動投下量 및 農業支出과 農業所得의 分析結果	31

第 4 章

表 4-1 海域別 漁場面積 現況, 1983	34
表 4-2 漁村契員 1 人當 漁場面積과 漁場單位面積當 生産金額	35
表 4-3 農漁家の 耕地面積과 土地生産性 比較, 1983	36
表 4-4 農漁家の 農業勞動投下時間과 勞動生産性, 1983	37
表 4-5 漁家戶當 耕地面積	37
表 4-6 漁村契員 1 人當 漁業從事期間	39
表 4-7 漁村契員 1 人當 從事漁業數	40
表 4-8 漁業生産基盤施設 現況, 1983	41
表 4-9 海域別 漁村契의 漁業生産基盤施設 充足度	42
表 4-10 立地類型別 漁村契의 漁業生産基盤施設 充足度	43
表 4-11 漁船勢力 現況, 1983	45
表 4-12 海域別 漁村契 漁船勢力	46
表 4-13 立地類型別 漁村契 漁船勢力	47
表 4-14 農産物 品目別 栽培面積 比率, 1982	49
表 4-15 畜産物 品種別 飼育家口 比率, 1982	51
表 4-16 業種別 農漁村 副業園地 現況, 1984	53
表 4-17 새 마을工場 現況, 1982	54
表 4-18 漁村契當 工場數	55
表 4-19 漁村契所在 工場當 年稼動日數 및 平均從事者數	56
表 4-20 主要海水浴場 現況	57
表 4-21 主要 바다낚시터 現況	57
表 4-22 漁村契所在 觀光關聯事業體數	58
表 4-23 事業體當 年營業日數 및 平均從事者數	59
表 4-24 水産部門 政府投融資事業實績	61
表 4-25 營漁資金 供給狀況	63
表 4-26 漁村새 마을事業 支援實績	65
表 4-27 農畜産에 대한 漁村새 마을事業 支援實績	67
表 4-28 漁村工業에 대한 漁村새 마을事業 支援實績	68

表 4-29	漁村觀光關聯事業에 대한 漁村 새마을事業 支援實績	69
表 4-30	漁村 새마을事業의 漁村契員 1人當 支援規模, 1979~1983	69

第 5 章

表 5-1	年度別 沿近海漁船 屯當 生産量	78
表 5-2	年度別 主要魚種別 生産量	78
表 5-3	主要品目別 人工種苗生産技術 水準	79
表 5-4	主要養殖品目 委販價格變動	81
表 5-5	主要 高所得養殖品目の 委販價格	82
表 5-6	船齡別 漁船隻數, 1983	84
表 5-7	船質別 漁船隻數, 1983	84
表 5-8	農漁村 指導人力 및 指導豫算 比較, 1982	86
表 5-9	1983年 價格支持事業 및 政府備蓄事業 實績	87
表 5-10	主要魚種別 生産量과 價格振幅係數, 1983	89
表 5-11	農漁家の 農業勞動生産性, 1983	90
表 5-12	主要畜産物 品種別 標準所得率(1980~1982 平均)	91
表 5-13	農漁家の 借入金 比較	94

第 1 章

序 論

1. 研究의 目的

그동안 漁家所得은 크게 증가되어 1983 年에 4,109 千원에 이르렀으나 이것은 同年 農家所得 5,128 千원의 80.1%, 都市勤勞者家口所得 4,991 千원의 82.3% 水準이다. 뿐만 아니라 漁家內에 있어서도 所得水準이 낮은 低所得漁家가 상당수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漁家所得의 増大는 물론 특히 균형적인 漁業發展 및 나아가서 産業部門間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들 低所得漁家の 所得増大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政府와 水協 등에서 이들 低所得漁家の 所得増大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全國漁村契 平均所得 미만인 漁村契에 대해 漁村새마을事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西海 5 島 特別支援事業으로서 漁船, 漁業資材 등의 施設支援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밖에 所得増大事業은 아니나 落島, 僻地漁民들의 生活便益을 위하여 生活必需品를 廉價로 공급하고 있고 1980 年 이후 중단되었으나 落島, 僻地漁民들의 診療를 위하여 共濟病院船을 운항하기도 했다. 그러

나 低所得漁家の 所得増大를 위한 이들 事業은 그 支援內容이 단순할 뿐 아니라 支援規模도 작아 低所得漁家の 所得増大에 기여한 바는 크지 않다. 즉 모든 産業部門에 있어서 마찬가지로이나 漁家の 所得増大를 위해서도 購買에서 生産, 販賣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低所得漁家の 경우 支援事業의 효과가 낮고 많은 資金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그동안 支援對象에서 외면되어 왔고 그 결과 아직 상당수의 低所得漁家が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금후 低所得漁家の 所得増大를 위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效率性은 물론 公平性도 상당히 고려하여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事業의 효과가 큰 漁家나 漁村에 계속 지원한다면 평균적인 漁家所得増大에는 바람직할 지 모르나 高低所得漁家間의 所得隔差는 더욱 심화되어 균형있는 漁業發展을 이루어 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低所得漁家の 所得増大를 위한 지원에 公平性을 상당히 고려해야 함은 우리나라 漁業의 屬性 내지 漁家が 처해 있는 여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 봄으로써 보다 명확해 진다. 즉 農業이나 漁業과 같은 第1次 産業에 있어서는 過剩勞動, 資本不足, 零細經營規模, 높은 不確實性 등으로 인해 生産性이 製造業으로 대표되는 第2次 産業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經濟發展過程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産業部門間 均衡發展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效率性이 큰 部門에만 계속적으로 우선지원 한다면 部門間의 均衡發展을 달성하기란 극히 어려울 것이다. 같은 이유로 漁家內에 있어서도 所得水準이 높은 高所得漁家 외에 經營規模가 영세한 低所得漁家が 상당수 있으므로 公平性을 고려하지 않을 때 이들 계층간의 所得隔差를 좁혀 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本研究에서는 低所得漁村育成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 效率性과 公平性을 동시에 고려한 低所得漁家の 所得増大方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어떤 事業部門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所得増大效果가 클 것인가를 분석하고 다음 이를 위한 海域別, 漁村立地類型別 우선지원순위는 어떠한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低所得漁家の

所得増大를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어떤 事業에 대해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도 살펴 보았다.

2. 研究의 内容 및 方法

本研究의 内容은 크게 漁家所得의 實態, 漁家所得決定要因,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要因 및 低所得漁村育成方案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분별 分析方法과 使用資料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가. 漁家所得의 實態

여기서는 漁家所得의 水準 및 構造를 먼저 漁業階層別로 비교하였으며 다음 이를 農家, 都市勤勞者家口 및 日本漁船漁家와 비교하였다. 이때 사용한 자료로는 漁家所得의 경우 漁家經濟調查結果報告, 農家所得은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都市勤勞者家口所得은 都市家計年報, 日本漁船漁家所得은 日本 漁業經濟調查報告(漁家の部)를 주로 참고하였다.

나. 漁家所得決定要因

여기서는 漁業階層別로 漁業을 비롯하여 農業, 其他兼業 및 事業外所得部門中 어느 부문에 참여하는 것이 漁家所得増大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를 분석해 보았다. 이때 漁家所得決定要因을 선정하기 위해 漁家所得과 기타 要因과의 相關分析(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또 이렇게 하여 선정된 要因들이 漁家所得増大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 要因을 獨立變數로, 漁家所得을 從屬變數로 하여 回歸分析(Regression Analysis)를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 多重回歸分析(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單純回歸分析(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병행하였다.

한편 분석을 위해서는 1983年 漁家經濟調查의 標本家口 750戶에 대한 基礎資料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들 標本家口는 專業 및 第1種 兼

業家口로서 沿近海漁業을 경영하는 個人漁業家口이며 遠洋漁業, 會社 및 共同事業체는 제외된 것이다. 또한 漁家經濟調查에서는 漁業階層으로 漁船非使用家口, 無動力船使用家口, 動力船使用家口 및 養殖業家口の 넷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動力船使用家口에서는 1982년까지 50톤 이상의 漁船을 사용하는 家口를 제외시켰으나 1983년부터는 使用漁船噸數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1983년부터는 漁業階層別로 總所得에 비례하여 標本配定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本資料를 사용하여 漁業階層別로 漁家所得決定要因을 분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要因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要因을 분석함에 있어서 高低所得漁村의 구분은 1982年 漁村契 平均所得이 450萬원 이상인 漁村契를 高所得漁村契, 漁村契 平均所得이 300萬원 미만인 漁村契를 低所得漁村契로 간주하였다. 이들 漁村間의 所得隔差要因은 크게 立地與件, 漁業參與程度, 漁業施設程度, 漁業外所得事業參與程度 및 所得增大支援程度로 나누었고 실제 분석은 이들 要因들이 海城別, 立地類型別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平均値로써 상호 비교하였다. 한편 사용자로는 水協中央會의 漁村契 現況카드, 漁村契別 漁村새마을事業 支援實績電算資料 및 現地調査와 郵便調査를 통해 수집된 것이며 분석에 사용된 對象漁村契數는 <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라. 低所得漁村育成方案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크게 두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低所得 漁村育成의 基本方向으로서 여기서는 漁家所得의 實態, 漁家所得決定要因 및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要因의 分析結果를 요약하였다. 둘째, 低所得 漁村育成을 위한 重點推進方案으로서 漁家の 所得構造 및 漁業活動과 관련한 諸與件의 分析結果를 토대로 금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事業部門을 살펴 보았다.

表 1-1 所得水準別 漁村契畝, 1982

單位: 個

	計	海 域 別			立 地 類 型 別			從 事 類 型 別		
		東海岸	西海岸	南海岸	都 市 近郊型	脆 弱 地區型	沿 岸 村落型	漁 船 漁業型	增養殖 業 型	複 合 型
計	1,449 (100.0)	183 (100.0)	197 (100.0)	1,064 (100.0)	178 (100.0)	312 (100.0)	959 (100.0)	393 (100.0)	738 (100.0)	318 (100.0)
450 萬圓 이 상	108 (7.5)	7 (3.7)	16 (8.1)	85 (8.0)	20 (11.2)	15 (4.8)	73 (7.7)	18 (4.6)	71 (9.6)	19 (5.9)
400 ~ 450 萬圓	107 (7.4)	10 (5.3)	20 (10.2)	77 (7.2)	18 (10.1)	15 (4.8)	74 (7.7)	14 (3.6)	49 (6.6)	44 (13.8)
350 ~ 400 萬圓	492 (34.0)	80 (42.6)	86 (43.7)	326 (30.6)	53 (29.8)	78 (25.0)	361 (37.6)	124 (31.6)	267 (36.2)	101 (31.8)
300 ~ 350 萬圓	632 (43.6)	73 (38.8)	57 (28.9)	502 (47.2)	71 (39.9)	176 (56.4)	385 (40.1)	189 (48.1)	313 (42.4)	130 (40.9)
300 萬圓 미 만	110 (7.6)	18 (9.6)	18 (9.1)	74 (7.0)	16 (9.0)	28 (9.2)	66 (6.8)	48 (12.2)	38 (5.2)	24 (7.6)

資料: 水協中央會

第 2 章

漁家所得의 實態

1. 漁家所得의 水準

가. 漁業階層別 漁家所得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漁家所得에 관한 公式統計는 農水産部에서 집계, 발표하고 있다. 이때 調査對象漁家は 沿近海漁業을 경영하는 個人漁業家口(專業 및 第1種 兼業家口)이며 漁業階層은 漁船非使用家口, 無動力船使用家口, 動力船使用家口, 養殖業家口の 넷으로 구분하고 있다.

漁業階層別로 漁家所得을 발표하기 시작한 1977年 이후 漁業階層別 漁家所得을 보면 <表 2 - 1>과 같다. 즉 1983年末 현재 全漁家平均所得은 4,109千원 이었는데 漁船非使用家口는 3,019千원, 無動力使用家口는 3,321千원, 動力船使用家口는 7,395千원, 養殖業家口는 3,643千원 이었다. 漁業階層別로 1977年~1983年の 漁家所得 年增加率을 보면 動力船使用家口가 27.1%로서 가장 컸고 無動力船使用家口가 14.5%로 가장 작았다. 그런데 1977~83年間 動力船使用家口の 漁家所得이 이렇게 월등히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調査對象에 包含되지 않았던 50吨이상의

表 2-1 漁業階層別 漁家所得의 變動

單位: 千圓, %

年 度 漁業階層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年增加率
全 漁 家 平 均	1,391	1,529	1,923	2,596	3,042	3,279	4,109	19.8
漁船非使用家口	880	1,193	1,456	1,980	2,652	2,670	3,019	22.8
無 動 力 船 使 用 家 口	1,473	1,364	1,750	2,120	2,777	3,132	3,321	14.5
動力船使用家口	1,751	1,649	2,003	3,353	3,901	4,280	7,395	27.1
養 殖 業 家 口	1,268	1,722	2,321	2,794	2,944	3,182	3,643	19.2

資料: 農水産部, 漁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0, 1984.

動力船使用家口가 1983 年에는 調査對象에 包含된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

漁船非使用家口는 매년 가장 낮은 所得水準을 보이고 있으나 1977~83 年間 漁家所得이 年 22.8%씩 증가하여 他漁業階層과의 所得隔差가 다소 축소되었다. 養殖業家口는 1978, 79 年の 양년도에는 漁業階層中 가장 많은 所得을 올리기도 했으나 그후 動力船使用家口 다음으로 높은 所得水準을 보이고 있다.

나. 部門別 漁家所得水準의 比較

漁家所得을 漁業階層別로만 살펴보는 것은 漁家所得水準의 정도를 알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漁家所得水準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他部門의 所得과 비교해 보았다. <表 2-2>에 의하면 漁家所得이 農家所得 또는 都市勤勞者家口所得에 비해 항상 低位에 있었으며 그 격차 역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77 年을 제외하고는 漁家所得이 農家所得에 가장 접근한 해는 1980 年인데 이는 1980 年 農業生産量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

表 2-2 部門別 所得變動

		單位：千圓，千圓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年增加率%
漁	家	1,391 (100.0)	1,529 (100.0)	1,923 (100.0)	2,596 (100.0)	3,042 (100.0)	3,279 (100.0)	4,109 (100.0)	19.8
農	家	1,433 (103.0)	1,884 (123.2)	2,227 (115.8)	2,693 (103.7)	3,688 (121.2)	4,465 (136.2)	5,128 (124.8)	23.7
都市勤勞者	家口	1,405 (101.0)	1,916 (125.3)	2,630 (136.8)	3,205 (123.5)	3,817 (125.5)	4,327 (132.0)	4,991 (121.5)	23.5
日本漁船漁家		4,002	4,010	4,361	4,564	4,517	4,864	-	4.0 ¹⁾

註 1) 1977 ~ 1982 年の 年平均 増加率임.

資料: 農水産部, 漁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84.

——,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84.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78 ~ 1984.

日本農林水産省, 漁家經濟調査報告(漁家の部), 1984.

리고 漁家所得이 都市勤勞者家口所得에 가장 접근한 해는 1977 年을 제외하고는 1983 年으로서 양부문간 所得金額의 차이는 21.5 %나 되고 있다.

한편 漁家所得과 農家所得의 차이가 가장 컸던 해는 1982 年으로서 이때 양부문간 所得差는 무려 36.2 %나 되었다. 또한 都市勤勞者家口所得과 차이가 가장 컸던 해도 1982 年으로 32.0 %나 되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漁家所得과 日本漁船漁家の 所得을 보면 經常價格基準으로는 그동안 우리나라 漁家の 所得增加率이 월등히 크므로 所得隔差가 대폭 줄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經常價格基準所得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양국간에 物價水準 및 換率의 차이로 인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韓·日양국간 漁家所得을 우선 基準年度の 所得으로 환산한 다음 그해의 換率을 가지고 조정함으로써 비로소 그 비교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양국간 物價水準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經常價格基準으로 표시된 韓國漁家所得과 日本漁船漁家所得을 兩國의 1980 年 基準 GNP 디플레이터로 환산하였으며 이를 다시 同年의 換率을 가지고 조정하여 日本漁船漁家所得을 1980 年 基準 우리나라 원

表 2-3 韓國漁家와 日本漁船漁家の 所得比較

單位 : 1980 年 基準金額千圓, %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年增加率	
								1977~ 1982年	1977~ 1983年
韓 國 漁 家	2,581 (100.0)	2,327 (100.0)	2,416 (100.0)	2,596 (100.0)	2,625 (100.0)	2,642 (100.0)	3,218 (100.0)	0.5	3.7
日 本 漁 船 漁 家	7,951 (308.1)	9,729 (418.1)	9,905 (410.0)	13,281 (511.6)	13,986 (532.8)	13,915 (526.7)	- -	11.8	-

貨價値로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表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表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漁家の 實質所得增加率は 1977~82 년에 年平均 0.5%, 1977~83 년에 年平均 3.7%로 극히 저조한 증가를 가져온 반면 日本漁船漁家に 있어서는 1977~1982 年間 年平均 11.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언하면 1977 年 日本漁船漁家の 所得水準이 우리나라 平均漁家所得의 약 3 배정도 였으나 1982 年에는 5 배 이상이 되어 그 격차는 해가 거듭될 수록 더욱 커지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양국간에 漁家所得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所得推計方法, 物價算定方法, 換率決定方法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表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漁家の 實質所得增加는 실로 미미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漁家所得의 構造

가. 漁業階層別 漁家所得 構造

漁業階層別 漁家所得 構造를 所得源別 所得金額을 통해 살펴보면 <表 2-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表에 의하면 1977 年~1983 年間 전체 漁業階層에 있어 漁業所得과 漁業外所得이 비슷한 比率로 증가하고 있다. 漁業外所得 中에서는 事業外所得의 增加率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農業所得이며, 其他兼業所得이 가장 작았다.

表 2-4 漁業階層別 漁家所得 構造變動

單位：千圓，%

漁業階層	年 度	漁業所得	漁業外所得			
			小 計	農業所得	其他兼業所得	事業外所得
全 漁 家 平 均	1977	890	501	322	43	136
	1980	1,752	844	313	79	451
	1983	2,570	1,539	692	79	768
	年增加率	19.3	20.6	13.6	10.7	33.4
漁 船 非 使 用 家 口	1977	457	423	175	32	216
	1980	1,404	576	90	28	458
	1983	1,556	1,463	426	76	961
	年增加率	22.7	23.0	16.0	15.5	28.2
無 動 力 船 使 用 家 口	1977	847	624	434	49	140
	1980	1,329	791	304	120	368
	1983	2,088	1,232	389	230	613
	年增加率	16.2	12.0	△ 1.8	29.4	27.9
動 力 船 使 用 家 口	1977	1,348	403	239	38	127
	1980	2,550	802	331	104	367
	1983	5,913	1,483	600	63	820
	年增加率	27.9	24.3	16.6	8.8	36.5
養 殖 業 家 口	1977	669	599	457	53	89
	1980	1,716	1,078	462	82	533
	1983	1,913	1,730	1,007	43	680
	年增加率	19.1	19.3	14.1	△ 3.5	40.3

資料：農水產部，漁家經濟調查結果報告，1984.

이들 漁業階層別로 살펴보면 漁業所得과 漁業外所得 共に 動力船 使用 家口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無動力船使用家口에서 가장 낮았다. 漁業外所得 中에서는 事業外所得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養殖業家口는 年平均 40.3%로서 가장 높았는데 他漁業階層에 있어서는 30%내외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한편 農業所得과 其他兼業所得은 漁業階層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漁業所得 增加率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無動力船使用家口の 農業所得이나 養殖業家口

의 其他兼業所得에 있어서는 오히려 負의 成長을 나타내고 있다.

나. 部門別 所得構造의 比較

漁業所得의 構造를 他部門所得의 構造와 比較해 보는 것도 앞으로 漁家所得의 增大를 위하여 어떤 部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받는 바가 클 것이다. <表 2-5>는 우리나라 漁家の 所得構造 變動을 農家 및 日本漁船漁家와 比較해 보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表에 의하여 農漁家間 所得源別 所得增加率을 보면 主業所得뿐 아니라, 農(漁)業外所得에 있어서는 農家가 높은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漁家の 漁業所得增加率이 農家の 農業所得增加率보다 낮은 이유는 <表 2-6>을 통해 볼때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農業收入의 增加率이 漁業收入의 增加率보다 컸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農業收入 중에는 米穀收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米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二重穀價制를 실시하여

表 2-5 部分別 所得構造의 變動

單位: 千圓, 千圓, %

	年 度	主業所得	農(漁)業外 所得		
			小 計	兼業所得	事業外所得
漁 家	1977	890	501	365	136
	1980	1,752	844	392	451
	1983	2,570	1,539	771	768
	年增加率	19.3	20.6	10.7	33.4
農 家	1977	1,036	397	39	357
	1980	1,755	938	66	872
	1983	3,331	1,797	183	1,615
	年增加率	21.5	28.6	29.4	28.6
日 本 漁 船 漁 家	1977	2,359	1,666	212	1,454
	1980	2,437	2,132	216	1,916
	1982	2,282	2,581	229	2,352
	年增加率	△0.7	9.1	1.6	10.1

資料: <表 2-2> 와 同一

表 2-6 農漁家の 收入 및 經營費 變動

單位: 千圓, %

	年 度	農(漁)業收入(A)	農(漁)業經營費(B)	B / A
漁 家	1977	1,797	907	50.5
	1980	3,090	1,338	43.3
	1983	5,415	2,845	52.5
	年 增加率	20.2	21.0	-
農 家	1977	1,334	298	22.3
	1980	2,342	587	25.1
	1983	4,702	1,371	29.2
	年 增加率	23.4	29.0	-

資料: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84.

_____, 漁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84.

어느정도 價格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漁家の 漁業收入에 있어서는 漁業資源의 고갈 및 低級化, 大量養殖生産物의 價格停滯 등으로 그 增加率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收入에 대한 經營費의 比率을 보면 漁業이 農業에 비해 훨씬 높다. 따라서 經營費의 增加率은 農業이 漁業보다 다소 높다하더라도 그것이 所得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漁業이 크고 그 결과 漁業所得의 增加率이 農業所得의 增加率보다 낮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表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漁)業外所得增加率도 漁家が 農家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漁家の 兼業所得 增加가 農家の 그것보다 크게 떨어지는데 그 기본 이유가 있다. 그런데 漁家の 兼業중에는 農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漁家の 農業所得은 앞의 <表 2-4>에서도 본바와 같이 1977~83年間 年 13.6% 밖에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이 부문의 낮은 增加가 궁극적으로 漁家所得의 增加가 낮은 이유의 하나가 된다. 事業外所得에 있어서는 漁家에서의 增加率이 農家の 그것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表 2-7>과 같다. 여기서는 使用資料의 제약상 1981~83年의 자료만으로 보았는데 이에 의하면 漁家에서는 특히 漁業外 勞賃의 增加

表 2-7 農漁家の 事業外所得 變動

單位：千圓

	年 度	計	農漁業 勞 賃	農漁業外 勞 賃	給 料	送金, 被贈 및 補助	其 他
漁 家	1981	540	78	49	112	196	105
	1982	712	101	62	116	320	113
	1983	768	113	93	114	309	139
	'83/'81 (倍)	1.4	1.4	1.9	1.0	1.6	1.3
農 家	1981	1,105	72	108	260	472	193
	1982	1,363	86	126	311	596	244
	1983	1,615	142	147	381	885	60
	'83/'81(倍)	1.5	2.0	1.4	1.5	1.9	0.3

資料：〈表 2-6〉과 同一

率이 컸고 그 다음이 送金, 被贈 및 補助이었다. 農漁家 모두 農漁業所得增大에 한계가 있으므로 所得增大을 위해서는 事業外所得의 增大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農(漁)業外勞賃과 給料의 增大가 특히 바람직하며 農(漁)業勞賃과 送金·被贈 및 補助의 증대는 반드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漁家와 日本漁船漁家の 所得構造를 비교해 보면 日本漁船漁家에 있어 主業所得인 漁業所得은 1982년이 1977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고 漁業外所得은 年平均 9.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의 대부분은 事業外所得이 年 10.1%씩 증가한데 기인한다. 그런데 앞에서도 본바와 같이 日本 경우 物價水準이 우리나라에 비해 극히 안정되어 있었으므로 實質所得 자체는 우리나라 漁家보다 높았던 바, 이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事業外所得增加가 훨씬 컸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주관심은 所得水準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 있어 얼마만큼의 所得이 증가했는가에 있는 만큼 事業外所得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漁業勞賃, 漁業外勞賃 및 給料에 대한 年別 增加를 보면 <表 2-8>과 같다. 즉 표에 의하면 1977~82年間 漁業勞賃은 오히려 감소했고 漁業外勞

表2-8 日本 漁船漁家の 主要事業外所得變動

單位：千円

	漁業勞賃	漁業外勞賃	給料
1977	285	425	375
1980	-	-	-
1982	220	478	531
'82/'77(倍)	0.8	1.1	1.4

資料：日本農林水産省，漁業經濟調査報告（漁家の部）1979, 1984

賃은 1.1 배, 給料은 1.4 배 증가함으로서 同期間 給料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볼 때 日本 漁船漁家の 事業外所得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漁村地域의 工業化 등 事業外所得源의 擴充으로 就業機會가 꾸준히 늘수 있었다는데 그 주요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第 3 章

漁家所得 決定要因

低所得漁村의 育成을 低所得漁家의 所得増大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漁家所得을 決定하는 要因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 要因 各各이 漁家所得을 決定하는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漁家所得決定要因의 선택 및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오늘날 계량화된 여러가지의 分析方法이 있으나 本章에서는 單純相關分析 (Simple Correlation Analysis), 多重回歸分析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및 單純回歸分析 (Simple Regression Analysis) 을 사용하였다. 먼저 單純相關分析은 所得을 決定하는 個個의 要因과 漁家所得과의 相互依存關係가 얼마나 密接한가를 分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要因이 漁家所得과의 相關度가 높다는 것만으로 漁家所得増大와 보다 큰 因果關係를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漁家所得増大 要因分析을 위한 前提로서 分析對象要因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有用한 手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他産業部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漁家所得은 主業所得 즉 漁業所得 外에 農業所得, 其他兼業所得, 事業外所得 등 여러가지 所得源으로 이루어지는 複合所得이므로 전체 漁家所得決定에는 큰 相關關係가 없다 하더라도 各所得源別로 所得決定과

큰 相關關係를 가진다면 이를 전체 漁家所得決定 要因으로 보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漁家は 그 從事形態로 보아 4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때 어떤 要因과 漁家所得과의 相關關係는 類型別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類型別로 相關度의 偏倚가 심하다고 하여 漁家所得의 決定要因이 아니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다음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선택한 要因을 獨立變數로하여 漁家所得과의 關係를 回歸分析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分析模型은 多重回歸 方程式

$$Y = a + b x_1 + c x_2 + d x_3 + \cdots$$
이며, 係數의 推定은 最小自乘法에 의하였다. 이때 從屬變數로는 漁家所得以外에 農業所得도 고려하였는데 前者는 漁家收入, 漁業收入 및 其他 漁業關聯要因과의 分析에서, 後者는 農業關聯要因과의 分析에서 使用하였다. 그리고 各各의 分析은 현재 農水産部에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漁業階層 즉 漁船非使用家口, 無動力船使用家口, 動力船使用家口, 養殖業家口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主要項目間 相關度

1983 年 農水産部에서 調査한 漁家經濟調査項目中 20 個 項目에 대해서 項目間 相關係數 (Correlation Coefficient)를 算出하고 그 結果에 대해서 檢討해 보고자 한다. <表 3-1>은 各項目間の 相關行列을 나타낸 表로서 細部項目은 從列에만 고려하고 橫列에서 除外하였다.

各項目別 相關度を 보면 다음과 같다.

가. 漁家所得과 諸項目의 相關度

漁家所得과 가장 相關度가 큰 項目은 漁業所得으로서 그 相關係數는 0.982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漁家所得과 漁業所得이 높은 相關關係를 나타낸 것은 대부분의 漁家が 漁業所得에 依存하고 있음을 立證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漁家所得과 農業所得이나 事業外所得과의 相關關係

表 3-1 主要項目間 相關度 分析

	어가소득	농업소득	어업수입	농업수입	어업지출	농업지출
어 가 소 득	1.00000	0.0099	0.9196	-0.0190	0.8574	-0.0665
어 업 소 득	0.9829	-0.1064	0.9260	-0.1274	0.8593	-0.0918
농 업 소 득	0.0099	1.0000	-0.1121	0.9140	-0.1098	0.1732
사 업 외 소 득	0.2253	-0.0559	0.1541	-0.0399	0.1698	0.0174
어 업 수 입	0.9196	-0.1121	1.0000	-0.1355	0.9888	-0.0998
농 업 수 입	-0.0190	0.9140	-0.1355	1.0000	-0.1333	0.5579
어 업 지 출	0.8574	-0.1098	0.9888	-0.1333	1.0000	-0.0989
농 업 지 출	-0.0665	0.1732	-0.0998	0.5579	-0.0989	1.0000
어 선 톤 수	0.7323	-0.1201	0.8394	-0.1445	0.8459	-0.1051
양식어장면적	-0.0011	0.1070	-0.0246	0.1003	-0.0298	0.0245
어 로 수 입	0.9152	-0.1240	0.9970	-0.1480	0.9863	-0.1056
양 식 수 입	0.0025	0.1594	-0.2030	0.1652	-0.0400	0.0749
수 산가공수입	-0.1076	-0.0361	0.0268	-0.0078	0.0791	0.0549
어 로 지 출	0.8666	-0.1140	0.9894	-0.1383	0.9971	-0.1026
양 식 지 출	-0.0773	0.1106	-0.0260	0.1326	-0.0001	0.0958
수 산가공지출	-0.0713	-0.0047	0.0332	0.0127	0.0772	0.0405
어업노동투하량	0.7399	-0.1553	0.8916	-0.1885	0.9092	-0.1400
농업노동투하량	-0.0973	0.5455	-0.1755	0.6508	-0.1739	0.4640
어로어업어획량	0.8940	-0.0979	0.9666	-0.1173	0.9567	-0.0843
양식어업어획량	-0.0073	0.1374	-0.0394	0.1298	-0.0472	0.0340

를 봄으로써 더욱 그 의미가 명확해 진다. 漁業所得 다음으로 相關도가 큰 項目은 漁業收入 0.9196, 漁撈收入 0.9152, 漁撈漁業 漁獲量 0.894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漁家所得과 漁撈漁業을 除外한 其他漁業과의 相關關係가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漁家所得이 漁撈漁業所得에 依存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農業所得과 諸項目의 相關度

農業所得과 가장 相關도가 큰 項目은 農業收入으로 0.9140의 相關係

數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農業勞動投下量이 0.5455로 다소 큰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으며 農業支出은 0.1732로 비교적 낮은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農業所得과 農業收入의 相關度는 높은 반면 農業所得과 農業支出의 相關度는 낮다는 것인데, 이것은 漁家間에 農業生産性的 차이가 매우 큼을 의미하고 있다.

다. 漁業收入과 諸項目의 相關度

漁業收入과 가장 相關度가 큰 項目은 漁撈收入으로서 0.9970의 相關係數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漁撈支出 0.9894, 漁業支出 0.9888, 漁撈漁業 漁獲量 0.9666, 漁業所得 0.9260 등의 순서로 높은 相關度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漁業收入과 養殖收入의 關係를 보면 逆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으며 水産加工收入과는 매우 낮은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

라. 農業收入과 諸項目의 相關度

農業收入과 가장 相關度가 큰 項目은 農業所得으로 0.9140의 相關係數를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農業勞動投下量으로서 相關係數가 0.6508이며 農業支出은 相關係數가 0.5579로 나타나고 있다.

마. 漁業支出과 諸項目의 相關度

漁業支出과 가장 큰 相關關係에 있는 項目은 漁撈支出로서 그 相關係數는 0.997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漁業收入 0.9888, 漁撈收入 0.9863, 漁撈漁業 漁獲量 0.9567, 漁業勞動投下量 0.9092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도 앞의 漁家所得이나 漁業收入에서의 마찬가지로 漁撈漁業과 가장 큰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바. 農業支出과 諸項目의 相關度

農業支出과 가장 큰 相關度를 가진 項目은 農業收入으로서 0.5579의 相關係數를 보이고 있고 農業勞動投下量은 0.4640의 相關係數를 보이고 있다.

以上에서 各項目間 相關度を 살펴본 結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漁業所得과 關聯한 各 項目과 農業所得과 關聯한 各 項目間에는 相關關係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漁家所得 漁業收入, 漁業支出과 各 項目間的 相關係數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크기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農業所得, 農業收入, 農業支出과 各 項目間的 相關係數 역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漁家の 所得分析을 함에 있어서 漁業關聯指標로는 漁家所得을 채택하고 農業關聯指標로는 農業所得을 채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환언하면 漁家所得 決定要因의 分析에 있어서 從屬變數는 漁家所得으로 하며, 農業所得 決定要因分析에 있어서의 從屬變數는 農業所得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獨立變數에 대해서는 다음의 回歸分析에서 나타내었다.

2. 漁家收入과 漁家所得

가. 分析結果

漁家所得은 漁家事業收入에서 經營費을 차감한 金額에 事業外收入을 加算한 것이므로 漁家收入을 漁家所得의 決定要因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漁家收入은 크게 漁業收入, 農業收入, 其他兼業收入 및 事業外收入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 收入源別 收入을 獨立變數로 하고 漁家所得을 從屬變數로 하는 多重回歸分析. 즉

Y (漁家所得) = f (漁業收入, 農業收入, 其他兼業收入, 事業外收入)의 模型으로 分析하였다. 그 分析結果는 <表 3 - 2>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漁業階層別로 漁家所得의 獨立變數에 관한 說明力을 나타내는 決定係數는 動力船使用家口에서 0.8780 으로 가장 컸다. 그 다음이 漁船非使用家口로서 0.8110 이었고 無動力船使用家口와 養殖業家口에서도 각각 0.5893, 0.5365 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回歸分析結果에 대한 有意性 檢定에서는 其他兼業收入을 제외한 대부분의 要因이 1%의 有

表 3-2 漁家收入과 漁家所得의 分析結果

	回 歸 係 數					R ²
	漁業收入	農業收入	其他兼業收入	事業外收入	常 數	
漁船非使用家口	0.7305 (0.0001)	0.5687 (0.0001)	0.0556 (0.5018)	0.8279 (0.0001)	462,213 (0.0001)	0.8110
無動力船使用家口	0.5982 (0.0001)	0.6172 (0.0001)	0.2369 (0.0370)	0.8463 (0.0001)	403,287 (0.1142)	0.5893
動力船使用家口	0.2825 (0.0001)	1.0645 (0.0105)	-0.5344 (0.1796)	-0.0324 (0.9221)	1,038,854 (0.0619)	0.8780
養殖業家口	0.3425 (0.0001)	0.9134 (0.0001)	-0.2345 (0.0431)	0.8892 (0.0001)	299,697 (0.2201)	0.5365

() 內는 有意水準

意水準에서 상당히 有意性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要因別 回歸係數를 보면 漁業收入에 있어서는 漁船非使用家口가 0.7305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無動力船使用家口가 0.5982, 養殖業家口가 0.3425였으며, 動力船使用家口는 0.2825로 가장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農業收入에 있어서는 動力船使用家口에서 1.0645로 상당히 큰 關係를 보이고 있으나 1% 有意水準에서는 有意性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養殖業家口가 0.9134, 無動力船使用家口가 0.6172, 漁船非使用家口가 0.5687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其他兼業收入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有意性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資料로서의 活用性이 극히 낮은데 5% 有意水準에서 제한적으로 보면 無動力船使用家口에서 0.2369의 回歸係數를 보이고 있으며 養殖業家口에서는 -0.2345로 負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事業外收入은 動力船使用家口를 제외한 全漁業階層에서 0.8~0.9 사이의 回歸係數를 보이고 있다.

나. 分析結果의 解釋

이상에서 漁家所得決定要因을 漁家收入으로 分析했는데 分析結果에 의하면 農業收入과 事業外收入의 回歸係數가 漁業收入의 回歸係數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금후 漁家所得増大를 위한 參與와 支援에 있어서 이들 部門에 보다 많은 관심이 두어져야함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이를 漁業階層別로 보면 漁船非使用家口에 있어서는 事業外收入部門, 漁業部門, 農業部門의 순서로 參與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이들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立地與件에 따라 유리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無動力船使用家口는 事業外收入部門, 農業部門, 漁業部門, 其他兼業部門의 순서로 參與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動力船使用家口는 分析結果를 통한 收入源別 우선 순위를 설명하기 困難하며 특히 農業收入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漁家所得과의 單純相關分析을 통해 檢證해 본 결과 -0.0974 의 극히 낮은 逆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漁業收入은 全階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漁業經營費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漁業生産量增加보다는 漁業經營費 節減努力이 더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養殖業家口의 所得増大에는 農業部門, 事業外收入部門의 參與가 바람직하며 漁業部門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高收益性 品目の 生産増大가 금후의 큰 課題가 될 것이다.

3. 漁業收入과 漁家所得

가. 分析結果

앞에서 살펴본 項目間 相關度 分析에서 漁業收入과 漁家所得의 相關關係는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漁業收入의 細部項目인 漁撈漁業收入, 養殖業收入, 水産加工收入을 獨立變數로 하고 漁家所得을 從屬變數로 하는 多重回歸分析 즉

$$Y(\text{漁家所得}) = f(\text{漁撈漁業收入, 養殖業收入, 水産加工收入})$$

의 分析模型으로 分析하였는데 그 分析結果는 <表 3-3>과 같다.

表에서 分析結果를 보면 漁業階層別 漁家所得의 獨立變數에 관한 決

定係數는 動力船使用家口에서 0.8891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無動力船使用家口 0.4608, 漁船非使用家口 0.2379, 養殖業家口 0.2136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 全體的으로 說明力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回歸分析結果에 대한 有意性 檢定을 1%의 有意水

表 3-3 漁業收入과 漁家所得의 分析結果

	回 歸 係 數				R ²
	漁撈漁業收入	養殖業收入	水産加工收入	常 數	
漁 船 非 使 用 家 口	0.4855 (0.0001)	0.9707 (0.0001)	-1.6336 (0.1146)	2,185,342 (0.0001)	0.2379
無動力船使用 家 口	0.5258 (0.0001)	0.7211 (0.0001)	-3.8103 (0.0001)	1,542,208 (0.0001)	0.4608
動 力 船 使 用 家 口	0.2792 (0.0001)	0.7518 (0.0007)	-7.3558 (0.0001)	1,626,727 (0.0004)	0.8891
養 殖 業 家 口	0.4879 (0.0001)	0.2236 (0.0001)	-4.9002 (0.0026)	2,503,301 (0.0001)	0.2136

準에서 볼 때 漁船非使用家口の 水産加工收入을 除外하고는 全階層 全要因에서 높은 有意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 要因別 回歸係數를 보면 漁撈漁業收入에 있어서는 無動力船使用家口가 0.5258로 가장 컸으며, 養殖業家口와 漁船非使用家口에서 각각 0.4879, 0.4855로 비슷한 크기를 나타내고 있고, 動力船使用家口는 0.2792로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다. 養殖業收入은 養殖業家口를 제외한 他漁業階層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漁船非使用家口가 0.9707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動力船使用家口 0.7518, 無動力船使用家口 0.7211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며 養殖業家口에서는 0.223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水産加工收入은 全階層에서 마이너스로 나타났는데 그 값은 動力船使用家口에서 -7.3558로 가장 컸고 養殖業家口와 無動力船使用家口에서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나. 分析結果의 解釋

이상에서 漁家所得決定要因으로 漁業收入의 細部項目(漁撈漁業收入, 養殖業收入, 水産加工收入) 別로 分析해 보았다. 分析結果에 의하면 漁家所得의 養殖業收入에 關한 回歸係數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水産加工收入에 關한 回歸係數는 逆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今後 漁業에 對한 參與와 支援에 있어서 養殖業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水産加工部門에 있어서는 他漁業과 同時的인 投資는 오히려 漁家所得을 감소시키는 逆作用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水産加工部門에 對한 支援이나 育成은 個別漁家別 혹은 特定地域別로 推進되어야지 漁業階層別 혹은 全地域을 대상으로한 施行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를 漁業階層別로 보면 養殖業家口에서는 漁撈漁業, 養殖業의 順序로 參與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나타났으며 他階層에서는 養殖業, 漁撈漁業의 順序로 參與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漁業階層別 主從事漁業 보다는 他漁業部門에 從事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나타난 것은 今後 現在의 主從事漁業에 對한 追加資本投下보다 漁業多邊化가 漁家所得增大에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4. 漁業生産量과 漁家所得

가. 分析結果

漁業收入이 漁家所得의 決定要因이 된다는 명백하나 이러한 漁業收入은 漁業生産量에다 그의 販賣價格을 곱한 概念이다. 따라서 漁業收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漁業生産量을 증가시키거나 販賣價格을 상승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물론 이들 양자간에는 逆의 相關關係가 있어 이들 두 요소가 동시에 증가하거나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販賣價格의 상승은 物價上昇이라는 副作用을 유발함으로써 漁業收入의 增大를 위한 方法으로서의 漁業生産量의 증가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項目間 相關度 分析에서 漁業生産量과 漁家所得과의 相關係數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기서는 漁業生産量を 獨立變數로 하고 漁家所得을 從屬變數로 하는 單純回歸分析의 模型으로 分析하였는데 그 分析結果는 <表 3 - 4>와 같다.

表에서 나타난 바를 보면 漁業階層別 漁家所得의 漁業生産量에 관한 決定係數는 動力船使用家口에서 0.821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其他漁業階層에서는 0.1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回歸分析結果에 대한 有意性 檢定에서는 無動力船使用家口를 除外한 全階層에 있어 有意水準 1%에서 有意의이었으며, 無動力船使用家口도 상당히 낮은 有意水準을 보이고 있어 全體漁業階層에서 有意의이라고 볼 수 있다. 漁家所得의 漁業生産量에 관한 回歸係數는 動力船使用家口가 137.60로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 漁船非使用家口가 102.93, 無動力船使用家口가 84.68, 養殖業家口가 55.76으로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다.

表 3 - 4 漁業生産量과 漁家所得의 分析結果

	回 歸 係 數		R ²
	漁 業 生 産 量	常 數	
漁 船 非 使 用 家 口	102.93 (0.0002)	2,683,061 (0.0001)	0.0849
無 動 力 船 使 用 家 口	84.68 (0.0168)	2,668,913 (0.0001)	0.0563
動 力 船 使 用 家 口	137.60 (0.0001)	3,061,641 (0.0001)	0.8217
養 殖 業 家 口	55.76 (0.0002)	2,846,571 (0.0001)	0.0710

나. 分析結果의 解釋

이상에서 漁家所得의 決定要因으로 漁家所得의 漁業生産量에 관한 回歸分析을 하였다. 分析結果에 의하면 動力船使用家口에서 回歸係數가 가장 큰데 이것은 이 階層에서 生産된 品目이 가장 高價品이고, 養殖業家口에서 回歸係數가 가장 작다는 것은 이 階層에서 生産된 品目이 가장 低價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養殖業家口에서는 優良品目の 開發이나 高收益性 品目 養殖으로의 轉換을 促進해야 할 것이며 養殖生産物에 대한 價格支持, 加工食品開發 등으로 販賣價格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漁業勞動投下量과 漁家所得

가. 分析結果

앞에서 漁業生産量を 漁家所得決定要因으로 하여 漁家所得과의 關係를 分析해 보았다. 그런데 앞의 分析의 目的은 어떻게 하면 漁業生産量を 증가시키며 漁業生産性を 向上시킬가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漁業生産性 向上을 꾀하기가 困難한 경우 漁業勞動投下量を 늘리는 것이 하나의 漁家所得増大를 위한 方法이 된다. 또 앞의 相關度 分析에서 漁業勞動投下량과 漁家所得의 相關關係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기서는 漁業勞動投下量を 獨立變數로 하고 漁家所得을 從屬變數로 하는 單純回歸分析의 分析模型으로 分析하였는데 그 結果는 <表 3-5>와 같다.

表에서 나타난 바를 보면 漁業階層別 漁家所得의 漁業勞動投下量에 관한 決定係數를 보면 動力船使用家口가 0.5221로 가장 높고, 漁船非使用家口, 養殖業家口, 無動力船使用家口가 각각 0.0175, 0.0261, 0.0299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動力船使用家口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게

表 3-5 漁業勞動投下量과 漁家所得의 分析結果

	回 歸 係 數		R ²
	漁業勞動投下量	常 數	
漁 船 非 使 用 家 口	- 249.26 (0.0965)	3,321,090 (0.0001)	0.0175
無 動 力 船 使 用 家 口	268.37 (0.0840)	2,608,906 (0.0001)	0.0299
動 力 船 使 用 家 口	1,254.38 (0.0001)	- 231,700 (0.8204)	0.5221
養 殖 業 家 口	236.23 (0.0209)	2,733,248 (0.0261)	0.0261

나타나고 있다. 한편 回歸分析結果에 대한 有意性を 보면 動力船使用家口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有意水準이 높게 나타나 結果値에 대한 信賴水準이 상당히 떨어지기는 하나 經濟分析에 있어서는 10%의 有意水準에서의 檢定方法도 종종 행해지고 있는바 여기서는 10% 有意水準에서 有意性 檢定을 하였다. 따라서 全階層에서 有意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動力船使用家口와 養殖業家口에서는 매우 有意的이었다. 漁家所得의 漁業勞動投下量에 관한 回歸係數는 動力船使用家口에서 1,254.4로 他漁業階層에 비해 월등히 컸으며 그 다음 無動力船使用家口와 養殖業家口에서 268.4, 236.2로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고 漁船非使用家口에서는 逆의 關係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 分析結果의 歸納

이상에서 漁家所得의 漁業勞動投下量에 관한 回歸分析을 하였다. 分析結果에 의하면 動力船使用家口에서 回歸係數가 매우 크게 나타나 動力船使用家口에서의 勞動生産性이 他漁業階層에 비해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動力船使用家口の 漁業施設 자체가 他漁業階層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大型化 (=近代化) 되어 있다는데 그 주원인이 있다. 반면 無動

力船使用家口와 養殖業家口에 있어서는 같은 이유로 漁業施設이 영세하기 때문에 勞動生産性이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이 兩漁業階層에서는 금후 漁業生産施設의 近代化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漁船非使用家口에서는 漁家所得의 漁業勞動投下量에 관한 回歸係數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바 이階層에 있어서는 앞의 漁家收入과 漁家所得의 分析結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漁業보다는 事業外所得部門에의 參與가 漁家所得増大에 더 바람직할 것이며 금후 이 部門에 대한 지원도 특히 漁船非使用家口들의 人力을 活用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6. 漁船屯數와 漁家所得

가. 分析結果

漁船이 大型化 될 수록 반드시 漁家所得이 증대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현재의 船腹量이 漁業資源狀態나 需要量에 비해 지나친 過剩狀態를 보이고 있지 않는한 漁家所得은 증대될 것이다. 漁家所得決定要因으로서의 漁船屯數는 漁撈漁業에 종사하는 漁家に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養殖業에 있어서도 漁船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앞에서 본 項目間 相關度 分析에서 漁船屯數와 養殖收入의 相關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回歸係數의 有意性이 극히 낮게 나타날 것은 自明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無動力船使用家口와 動力船使用家口에 대해서만 分析하고자 한다. 分析方法은 漁船屯數를 獨立變數로 하고 漁家所得을 從屬變數로 하여 分析했는데 그 分析結果는 <表 3 -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漁家所得의 漁船屯數에 대한 決定係數는 動力船使用家口가 0.5212로 꽤 높은 반면 無動力船使用家口는 0.0565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分析結果에서 도출된 回歸係數의 有意性 檢定結果 動力船使用家口는 1% 有意水準에서 有意의이었으며, 無動力船使用家口는 약 2%의 有意水準을 보이고 있어 結果值 活用上的 문

表 3-6 漁船噸數와 漁家所得의 分析結果

	回 歸 係 數		R ²
	漁 船 噸 數	常 數	
無 動 力 船 使 用 家 口	- 405.00 (0.0167)	3,482,174 (0.0001)	0.0565
動 力 船 使 用 家 口	354.71 (0.0001)	2,919,350 (0.0013)	0.5212

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兩階層의 回歸係數를 보면 動力船使用家口에서는 354.7이었는데, 無動力船使用家口에서는 -405.0으로 逆關係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分析結果의 解釋

이상에서 나타난 分析結果를 볼 때 動力船使用家口에 있어서 漁船 1톤의 增加가 漁家所得에 미치는 영향은 354.7 원으로서 상당히 낮은 所得效果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船腹量이 어느정도 過剩狀態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無動力船使用家口의 回歸係數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은 無動力船으로 大型化하는 것은 오히려 漁家所得의 감소를 초래함을 뜻한다. 따라서 今後 無動力船의 大型化는 억제되어야 하며 漁船의 動力化가 더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7. 漁家支出과 漁家所得

漁家所得이 漁家收入에서 漁家支出을 차감하여 얻어지므로 漁家支出 역시 漁家所得을 결정하는 要因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漁家支出 역시 漁家收入에서의 분류와 같이 漁業支出, 農業支出, 其他兼業支出로 나누어지므로 여기서 이들 支出 각각을 獨立變數로, 漁家所得을 從屬變數로 하여 Y (漁家所得) = f (漁業支出, 農業支出, 其他兼業支出)의 式으로 回歸

分析을 해 보았는데 分析結果全體 漁業階層에서 決定係數가 극히 작았을 뿐만 아니라 有意水準 또한 매우 높아 채택하기 힘들었다.

8. 農業收入과 農業所得

가. 分析結果

지금까지는 漁家所得決定要因 중에서 漁業所得과 關聯한 要因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그런데 漁家收入 중에서 漁業收入 다음으로 農業收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漁家所得決定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후의 漁家所得決定要因 分析은 農業所得과 關聯된 要因에 대해서 分析하고자 한다. 農業所得과 關聯한 分析은 前述한 項目間 相關度分析에서 이미言及한 바와 같이 農業所得을 所得指標로 하여 分析하였다. 물론 보다 直接的인 分析方法은 漁家所得과 農業所得關聯要因과의 分析이겠으나 豫備 分析結果 相關도와 有意性이 매우 낮아 채택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農業收入은 다음과 같은 分析模型으로 分析하였다.

즉 $Y(\text{農業所得}) = f(\text{耕種收入}, \text{畜産收入})$

위의 分析模型에 따른 分析結果는 <表 3 - 7>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農業所得의 獨立變數에 관한 決定係數는 動力船使用家口가 0.92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養殖業家口가 0.7160, 漁船非使用家口와 無動力船使用家口가 각각 0.6468, 0.6433으로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높은 說明力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分析結果인 回歸係數의 有意性은 養殖業家口の 畜産收入을 제외하고는 1%의 有意水準에서 매우 有意의이었다.

한편 農業所得의 耕種收入에 관한 回歸係數를 보면 養殖業家口에서 1.122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動力船使用家口로 0.9625로 나타났고, 漁船非使用家口와 無動力船使用家口에서 각각 0.6283, 0.6091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農業所得의 畜産收入에 관한 回歸係數는 動

表 3-7 農業收入과 農業所得의 分析結果

	回 歸 係 數			R ²
	耕 種 收 入 ¹⁾	畜 産 收 入 ²⁾	常 數	
漁 船 非 使 用 家 口	0.6283 (0.0001)	0.7424 (0.0001)	6,413 (0.9091)	0.6468
無 動 力 船 使 用 家 口	0.6091 (0.0001)	-0.3713 (0.0001)	112,825 (0.0130)	0.6433
動 力 船 使 用 家 口	0.9625 (0.0001)	0.9732 (0.0001)	-24,390 (0.2068)	0.9242
養 殖 業 家 口	1.1227 (0.0001)	-0.2244 (0.4736)	-199,284 (0.0139)	0.7160

1) 穀物과 其他農作物收入의 合計임.

2) 畜産物과 大動物 增殖收入의 合計임.

力船使用家口에서 가장 커 0.9732 를 보였고, 그다음 漁船非使用家口로서 0.7424 를 나타냈으나 無動力船使用家口 및 養殖業家口에서는 마이너스를 보였다.

나. 分析結果의 解釋

漁業階層中 農業部門에 종사함으로써 農業所得을 增大시키는데 가장 유리한 階層은 動力船使用家口로서 이 階層에서는 耕種 및 畜産 모두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漁船非使用家口에서는 動力船使用家口만큼 回歸係數가 크지는 않으나 耕種 및 畜産部門에의 參與가 農業所得增大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養殖業家口와 無動力船使用家口에 있어서는 耕種部門에의 參與는 바람직한 것으로 分析되었으나 畜産部門에의 參與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養殖業家口의 경우 특히 耕種部門에서의 參與는 農業所得 나아가서 漁家所得增大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9. 農業勞動投下量 및 農業支出과 農業所得

가. 分析結果

앞에서 漁家所得決定要因으로서 漁業勞動投下量과 漁業支出에 대해서 分析해 보았는데 前者는 有意水準이 다소 낮기는 하였으나 有意性이 있어 分析結果로서 活用하였으나 後者는 有意性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폐기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農業所得과 다소 相關도가 높은 農業勞動投下量 및 農業支出을 獨立變數로 하여 分析하였다. 특히 이들 獨立變數를 個別的으로 分析하지 않고 多重分析한 이유는 이 두 要因間의 相關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 둘은 적잖은 關係가 있기 때문이다. 分析結果는 <表 3-8>과 같은데 이들 獨立變數의 決定係數는 動力船使用家口에서 0.60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은 無動力船使用家口로서 0.5296이었으며 漁船非使用家口와 養殖業家口에서 각각 0.2282, 0.18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回歸係數의 有意性을 보면 養殖業家口の 農業支出을 제외하고는 有意水準 1%에서 매우 有意의 이었다.

表 3-8 農業勞動投下量 및 農業支出과 農業所得의 分析結果

	回 歸 係 數			R ²
	農業勞動 投下量	農業支出	常 數	
漁船非使用 家口	720.20 (0.0001)	- 0.2943 (0.0084)	137,911 (0.1099)	0.2282
無動力船 使用家口	846.18 (0.0001)	- 0.3450 (0.0001)	55,082 (0.3309)	0.5296
動力船 使用家口	647.87 (0.0001)	1.4896 (0.0001)	- 8,508 (0.8528)	0.6038
養殖業 家口	755.65 (0.0001)	- 0.1154 (0.5942)	346,462 (0.0181)	0.1827

農業所得의 農業勞動投下量에 關한 回歸係數를 보면 無動力船使用家口가 846.18로 가장 크고, 養殖業家口가 755.65, 漁船非使用家口가 720.20, 動力船使用家口가 647.87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 漁業階層間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한편, 農業所得의 農業支出에 關한 回歸係數를 보면 動力船使用家口에서는 1.4896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支出의 增加가 오히려 農業所得을 增大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階層을 제외하고는 모든 階層에서 逆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값을 보면 無動力船使用家口에서 -0.3450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漁船非使用家口에서는 -0.2943 이었다.

나. 分析結果 解釋

以上에서의 分析結果를 보면 農業勞動生産性에 있어서는 無動力船使用家口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農業參與를 통한 兼業所得增大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農業支出에 대한 부담이 他 階層에 비해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어 農業經費 節減 努力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動力船使用家口에 있어서는 農業勞動生産性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農業支出의 증가가 農業所得의 증대를 가져오는 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는 農業에 대한 投資效率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固定資産 投資比率이 극히 높은 動力船使用家口에 있어서 아무리 農業의 投資效率이 높다 하더라도 이의 育成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第 4 章

高低所得 漁村間 所得隔差要因

앞에서 漁家所得 決定要因의 分析을 통하여 금후 漁家所得増大를 위해서 어떤 部門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政府나 기타 機關에 있어서도 어떤 部門에 대한 支援을 늘려나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그런데 分析 자체가 漁業階層別로 이루어졌으므로 低所得漁村漁家の 所得増大를 위한 方案으로서 실제 活用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海域別, 漁村立地類型別로 漁業形態가 매우 다르고 동일한 漁業形態(예를 들면 養殖業)라 하더라도 對象魚種, 漁業方法, 漁家の 經營規模 차이가 심한데, 이러한 地域與件을 고려하지 않은 分析結果는 그 活用に 큰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의 要因이 어디에 있는가를 海域別, 漁村立地類型別로 파악함으로써 漁家所得決定要因에 대한 分析結果의 活用性을 높이하고자 한다. 즉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要因의 구명을 통하여 低所得漁村의 漁家所得増大에 필요한 事業의 支援優先順位를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要因別로 高低所得漁村間 차이가 클수록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人爲的으로 公平性을 강조하지 않을 경우 高低所得 漁村間 所得隔差의 해소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要因을 파악함에 있어서 所得隔差要因으

로는 크게 立地與件, 漁業參與程度, 漁業施設程度, 漁業外所得事業參與程度, 所得事業支援程度로 나누었는데 이들 각각이 漁家所得決定要因과 상충되지는 않으며 다른 각도에서 다소 구체적으로 본것이다.

1. 立地與件

가. 漁場面積과 漁場生産性

1983 年末 현재 우리나라의 漁場面積現況을 보면 總免許面積은 292,203 ha 에 이르고 있는데 種類別로는 第 1 種共同漁場이 117,642 ha 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이 養殖漁場 88,468 ha, 第 3 種共同漁場 64,745 ha, 第 2 種共同漁場 11,020 ha, 定置漁場 10,328 ha 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表 4-1>.

각 어장의 海域別구성비를 보면 東海岸에서는 定置漁場이 전체 정치어 장면적의 72.0 %로 가장 넓으나, 養殖漁場은 가장 좁으며 (전체의 1.1%)

表 4-1 海境別 漁場面積 現況, 1983

單位 : ha						
	計	第 1 種 共同漁場	第 2 種 共同漁場	第 3 種 共同漁場	定 置 漁 場	養 殖 漁 場
全 國	292,203 (100.0)	117,642 (100.0)	11,020 (100.0)	64,745 (100.0)	10,328 (100.0)	88,468 (100.0)
東 海 岸 ¹⁾	32,288 (11.0)	21,351 (18.1)	641 (5.8)	1,878 (2.9)	7,431 (72.0)	987 (1.1)
西 海 岸 ²⁾	31,741 (10.9)	10,318 (8.8)	-	3,863 (6.0)	422 (4.1)	17,138 (19.4)
南 海 岸 ³⁾	228,174 (78.1)	85,973 (73.1)	10,379 (94.2)	59,004 (91.1)	2,475 (24.0)	70,343 (79.5)

1) 강원, 경북을 포함

2) 경기, 충남, 전북을 포함

3) 전남, 경남, 제주를 포함

資料 : 水産院

西海岸은 養殖漁場을 제외한 기타의 漁場開發이 극히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南海岸은 定置漁場을 제외한 기타漁場에 있어서 가장 넓은데 특히 第2種共同漁場과 第3種共同漁場에 있어서는 각각 전체의 94.2 % 및 91.1 %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漁村契員 1人當 漁場面積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高低所得漁村間 별로 차이가 없으나 海域別로 보면 東海岸과 西海岸에서는 低所得漁村에서 南海岸에서는 高所得漁村에서 다소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4-2> 그리고 이를 立地類型別로 보면 都市近郊型漁村에서는 低所得漁村의 漁場面積이 다소 넓으나 脆弱地區型漁村 및 沿岸村落型漁村에서는 것의 반에 불과하다.

單位漁場面積當 生産金額은 高低所得漁村間 차이가 매우 심해 전국적으로는 低所得漁村이 高所得漁村의 70.5 %에 불과했는데 海域別로는 東海

表 4-2 漁村契員 1人當 漁場面積과 漁場單位面積當 生産金額

單位: ha, 千圓

		漁 場 面 積 1)			ha 當 生 産 金 額		
		高所得(A)	低所得(B)	B/A(%)	高所得(A)	低所得(B)	B/A(%)
全國 平均		1.47	1.48	100.7	1,295	913	70.5
海 域 別	東 海 岸	1.92	2.10	109.4	1,125	695	61.8
	西 海 岸	1.51	1.76	116.6	1,057	730	69.1
	南 海 岸	1.41	1.23	87.2	1,410	1,055	74.8
立 地 類 型 別	都市近郊型	1.02	1.25	122.5	1,411	793	56.2
	脆弱地區型	1.67	1.62	97.0	1,018	701	68.9
	沿岸村落型	1.50	1.49	99.3	1,412	1,068	75.6

1) 漁村契所有 第1,2,3種 共同漁場, 養殖場 및 定置漁場 合計임.

資料: 水協中央會

岸이, 立地類型別로는 都市近郊型이 그 격차가 가장 커 각각 低所得漁村이 高所得漁村의 61.8 %, 56.2 %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때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의 해소를 위해서는 低所得漁村

에 있어 漁場開發보다는 漁場生産性 向上이 더욱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海域別로는 東海岸과 西海岸이, 立地類型別로는 都市近郊型和 脆弱地區型の 漁場生産性이 특히 낮으므로 이들 地域에 대해 우선적으로 漁場生産性向上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 耕地面積과 土地生産性

1980年 基準 總漁業調查報告에 따르면 우리나라 漁家の 경우 戶當平均耕地面積이 1,315 坪인데 이것은 同年基準 農業調查에서 나타난 農家の 2,805 坪에 대해 46.9%에 해당한다<表 4-3>. 또 表에 의하여 農漁家の 土地生産性을 비교해 보면 1983年 農業收入을 기준으로 할 때는 漁家が 農家の 43.1%, 同年 農業所得을 기준으로 할 때는 44.8%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漁家の 경우 農家に 비해 耕

表 4-3 農漁家の 耕地面積과 土地生産性比較, 1983

	耕地面積 ²⁾ (A) (坪)	農業收入(B) (千圓)	農業所得(C) (千圓)	B/A (圓/坪)	C/A (圓/坪)
漁 家 ¹⁾	1,315	940	692	723	532
農 家	2,805	4,702	3,331	1,676	1,188
漁家/農家(%)	46.9	20.0	20.8	43.1	44.8

1) 第1種 兼業家만을 對象으로 함

2) 1980年 基準 面積임.

資料: 農水産部, 1980年 總漁業調查報告, 1982

_____, 1980年 農業調查, 1982

_____, 漁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4

_____,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4

地面積이 좁으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耕地 마저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表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業部門에 대

表 4-4 農漁家の 農業勞動投下時間과 勞動生産性, 1983

	農業勞動投下量(時間)	時間當農業收入(원/時間)	時間當農業所得(원/時間)
漁 家	685	1,372	1,010
農 家	2,004	2,346	1,662
漁家/農家 (%)	34.2	58.5	60.8

資料: < 表 4-3 > 과 同一

한 勞動投下量(時間)이 農家に 비해서 훨씬 적다는데 큰 이유가 있다.

그리고 漁家の農業部門에 대한 勞動投下時間이 農家に 비해 적음으로써 漁家の 坪當 農業收入 또는 農業所得이 적기는 하나<表 4-4>의 時間當 農業收入 또는 時間當 農業所得을 農漁家間 비교해 볼 때 漁家が 60%水準에 불과하다는 것은 앞으로 漁家の 所得増大를 위해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현지조사 결과 나타난 高低所得漁村間 耕地面積 現況을 보면 全國平均으로는 高所得漁村이 1,676 坪, 低所得漁村이 1,297 坪으로 나타나 低所得漁村의 高所得漁村에 대한 비율은 77.4%였다<表 4-5>. 이를 海城別로 보면 高低所得漁村 共히 南海岸에서 耕地面積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高低所得漁村間 차이는 西海岸이 가장 커 低所得漁村의 高所得漁村에 대한 비율은 71.5%였다. 立地類型別 耕地面積에 있어서

表 4-5 漁家戶當 耕地面積

單位: 坪

		高 所 得 (A)	低 所 得 (B)	B/A (%)
全 國 平 均		1,676	1,297	77.4
海 域 別	東 海 岸	1,119	862	77.0
	西 海 岸	1,717	1,227	71.5
	南 海 岸	1,754	1,488	84.8
立 類 型 地 別	都市近郊型	1,141	962	84.3
	脆弱地區型	1,605	1,379	85.9
	沿岸村落型	1,883	1,331	70.7

는 대체적으로 沿岸村落型 漁村에서 가장 넓고 다음으로 脆弱地區型 漁村, 都市近郊型 漁村의 順으로 나타났다. 立地類型別 高低所得漁村間 耕地面積의 차이는 沿岸村落型 漁村이 가장 커 低所得漁村의 耕地面積은 高所得漁村의 70.7 %였으며 都市近郊型 漁村과 脆弱地區型 漁村의 高低所得漁村間 耕地面積 차이 정도는 비슷하게 85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耕地面積擴大에 대한 支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各 漁家別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耕地의 生産性を 높이는데 대한 지원이 더욱 바람직하다.

2. 漁業參與 程度

가. 漁業從事期間

다른 조건이 동일한 한 漁業에 從事하는 기간이 길수록 漁家所得이 높을 것이다. 물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假定 자체가 전국 漁村을 대상으로 해서 설정되었다면 地域別 興件의 차이가 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희박할 수 있으나, 동일한 海域 또는 立地類型內에서 高低所得漁村間 비교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方式으로 高低所得漁村의 漁業從事期間을 산정했다.

漁村契員 1人當 漁業從事期間 = $\frac{\sum (漁業別 操業期間 \times 漁業別 從事漁村契員數)}{漁村契員數}$

즉, 漁村의 概念을 漁村契의 綜合이라고 보고 各漁村契別로 漁業別 操業期間에 실제 종사하는 漁村契員의 數를 곱한 것을 모두 더하여 漁村契員數로 나누었다. 이와 같은 方式으로 계산한 漁業從事期間을 表로 나타낸 것이 <表 4-6>이다. 즉 전국적으로는 高所得漁村의 漁村契員 1人當 漁業從事期間이 11.1 個月이었고, 低所得漁村은 9.8 個月로서 高所得漁村에서의 漁業從事期間이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表 4-6 漁村契員 1 人當 漁業從事期間

單位：個月

		高所得(A)	低所得(B)	B/A (%)
全國平均		11.1	9.8	88.3
海域別	東海岸	11.4	10.5	92.1
	西海岸	10.6	8.4	79.2
	南海岸	11.0	9.8	89.1
立地類型別	都市近郊型	11.8	10.4	88.1
	脆弱地區型	11.2	10.7	95.5
	沿岸村落型	11.0	9.4	85.5

이를 海域別로 보면 海域間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東海岸이 가장 길었고 西海岸이 가장 짧았으며 高低所得漁村間 차이는 西海岸에서 다소 크게 나타났다. 다음 이를 立地類型別로 보아도 類型間 차이가 별로 없으나 都市近郊型 漁村에서의 漁業從事期間이 다소 길었고 高低所得漁村間 차이는 立地類型別도 별로 없었다.

이상에서 볼 때 漁業從事期間은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要因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나. 從事漁業數

高低所得漁村間 從事漁業數의 차이 즉, 漁業多邊化程度는 兩 漁村間 所得隔差要因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從事漁業數를 각각 산정해 보았는데 그 計算式은 다음과 같다.

$$\text{漁村契員 1 人當} = \frac{\sum \text{漁業別 從事漁村契員數}}{\text{漁村契員數}}$$

즉, 각 漁村契에 있어서 漁業別로 당해 漁業에 從事하는 契員數를 重複計算을 허용하여 합한 결과를 漁村契員數로 나누는 방법으로 漁村契員 1 人當 從事漁業數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式에 의하여 계산한 從事漁業數는 <表 4-7>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高低所得漁村 모두 從事漁業數가 2 가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高所得漁村에서의 從事漁業數가 1.70 個로 低所得漁村의 1.39 個보다 다소 많았다.

表 4-7 漁村契約員 1 人當 從事漁業數

單位：個

		高 所 得 (A)	低 所 得 (B)	B / A (%)
全 國 平 均		1.70	1.39	81.8
海 域 別	東 海 岸	1.74	1.58	90.8
	西 海 岸	1.80	1.26	70.0
	南 海 岸	1.66	1.33	80.1
立 類 型 地 別	都市近郊型	1.60	1.43	89.4
	脆弱地區型	1.65	1.20	72.7
	沿岸村落型	1.76	1.45	82.4

이를 海域別로 보면 海域別 從事漁業數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高低所得漁村間에는 西海岸에서 다소 차이가 커 低所得漁村의 從事漁業數가 高所得漁村의 그것에 비해 70 % 정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立地類型別로 보더라도 각 類型間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脆弱地區型에서 高低所得漁村間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海域別로는 面海岸, 立地類型別로는 脆弱地區型에서 從事漁業數가 적으므로 금후 이들 地域에 대한 漁業多邊化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漁業施設 程度

가. 漁業生産基盤施設

漁業生産基盤施設로서의 漁港施設은 크게 漁船의 安全收容과 漁民財産

의 보호를 위한 外廓施設과 漁業生産物(漁獲物)의 揚陸處理와 流通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緊留施設의 둘로 나눌 수 있는데 前者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防波堤와 護岸을 들 수 있고 後者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船着場과 物揚場 등을 들 수 있다.

1983年末 우리 나라의 漁業生産基盤施設現況을 보면 總漁港施設規模는 230,409m로서 (表 4-8), 이 중에는 防波堤가 56,749 m, 護岸이 82,622 m, 船着場이 77,923 m, 物揚場이 13,115 m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들 施設物 種類別로 전체 施設計劃에 대한 既施設의 비율을 보면 防波堤가 45.8%, 護岸이 57.8%, 船着場이 63.1%, 物揚場이 31.9%로서 현재 漁業生産基盤施設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表 4-8 漁業生産基盤施設 現況, 1983

單位: m

	總 施 設 計 劃	現 地 施 設	施 設 比 率(%)
計	488,258	230,409	47.2
防 波 堤	123,995	56,749	45.8
護 岸	142,867	82,622	57.8
船 着 場	123,564	77,923	63.1
物 揚 場	41,083	13,115	31.9

資料: 水産廳,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84

이러한 漁業生産基盤施設의 必要規模에 대한 비율 즉 漁業生産基盤施設의 充足度を 現地調査한 結果를 海域別로 나타낸 것이 <表 4-9>이다. 表에 의하면 施設物 種類別로 앞의 表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첫째, 防波堤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高所得漁村이 49.6%, 低所得漁村이 42.7%의 充足度を 보이고 있어 高所得漁村의 充足도가 6.9%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海域別로는 東海岸의 充足도가 가장 높으며, 西海岸이 가장 낮는데 이것은 防波堤가 漁撈漁業에 주로 종사할 경우 그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施設이 많았기 때문인 것

表 4-9 海域別 漁村의 漁業生産基盤施設 充足度¹⁾

單位 : %

			防波堤	設 岸	船着場	物揚場
全 國		高所得(A)	49.6	71.1	66.1	55.1
		低所得(B)	42.7	50.8	51.0	50.7
		A - B	6.9	20.3	15.1	4.4
海 域 別	東海岸	高所得(A)	65.4	75.9	64.1	68.1
		低所得(B)	46.0	58.4	48.7	67.5
		A - B	19.4	17.5	15.4	0.6
	西海岸	高所得(A)	30.9	59.2	60.1	56.5
		低所得(B)	32.4	51.4	53.7	56.2
		A - B	△ 1.5	7.8	6.4	0.3
	南海岸	高所得(A)	48.0	73.1	68.2	52.6
		低所得(B)	36.4	49.3	51.5	26.4
		A - B	11.6	23.8	16.7	26.2

1) $\frac{\text{現在規模}}{\text{必要規模}} \times 100$

으로 생각된다. 또 防波堤의 充足度에 대한 高低所得漁村間 차이는 東海岸이 가장 커서 19.4 % 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둘째, 護岸을 보면 전국적으로 高所得漁村이 71.1 %, 低所得漁村이 50.8 %의 充足度를 보이고 있어 施設物 種類別로 高低所得漁村間 격차가 가장 큰데, 이것은 護岸이 生産手段의 보호나 生産活動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광범위하게 漁民의 財産保護의 기능을 하는데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海域別로는 防波堤와 마찬가지로 東海岸의 充足度가 가장 크고 西海岸이 가장 작으며, 高低所得漁村間 차이는 南海岸이 가장 커서 高低所得漁村間 23.8 % 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세째, 船着場은 전국적으로 高所得漁村이 66.1 %, 低所得漁村이 51.0 %의 充足度를 보여 施設物 種類別로는 護岸 다음으로 高低所得漁村間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海域別로는 充足度에 큰 차이가 없으나 高低所

得漁村間에는 南海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 16.7 % 포인트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物揚場은 漁獲物의 원활한 揚陸處理와 流通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施設로서 전국적으로 高所得漁村이 55.1 %, 低所得漁村이 50.7 %의 充足度를 보임으로써 高所得漁村과 4.4 % 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施設物 種類別로 高低所得漁村間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이다. 海域別로는 東海岸의 充足度가 가장 크고 南海岸의 充足度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高低所得漁村間 차이는 東海岸이나 西海岸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南海岸에서는 차이가 상당히 심해 高低所得漁村間 26.2 % 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漁業生産基盤施設을 立地類型別로 보면 <表 4 - 10>과 같다.

첫째, 防波堤는 高低所得漁村 공히 都市近郊型에서 充足度가 가장 컸으며 脆弱地區型에서 가장 작았다. 또 高低所得漁村間 차이 역시 都市近郊型이 가장 크고, 脆弱地區型에서 가장 작아서 각각 高低所得漁村間 11.1 % 포인트와 3.6 % 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護岸에 대한 充足度는 沿岸村落型이 50 %정도의 수준으로 가장 작았으나, 高低所得漁村間 차이는 都市近郊型에서 가장 커 무려 38.4 % 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表 4 - 10 立地類型別 漁村의 漁業生産基盤施設 充足度

單位 : %

		防 波 堤	設 岸	船 着 場	物 揚 場
都市近郊型	高所得 (A)	58.4	78.6	78.6	51.1
	低所得 (B)	47.3	40.2	53.1	68.3
	A - B	11.1	38.4	25.5	△ 17.2
脆弱地區型	高所得 (A)	31.2	67.0	70.5	35.9
	低所得 (B)	27.6	64.3	55.0	38.6
	A - B	3.6	2.7	15.5	△ 2.7
沿岸村落型	高所得 (A)	47.9	50.2	59.1	58.7
	低所得 (B)	42.3	48.1	48.5	54.0
	A - B	5.6	2.1	10.6	4.7

세째, 船着場에 대한 充足度 자체는 都市近郊型이 가장 크고 沿岸村落型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高低所得漁村間 차이는 都市近郊型이 가장 커 25.5% 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네째, 物揚場에 대한 充足度는 脆弱地區型이 36% 수준으로 가장 작았으나 高低所得漁村間 차이는 沿岸村落型의 4.7%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都市近郊型과 脆弱地區型에서 오히려 低所得漁村의 充足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 類型의 低所得漁村에 있어서 必要規模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防波堤에 있어서 充足度 크기는 西海岸과 脆弱地區型에서 작았으나 高低所得漁村間 차이는 東海岸과 都市近郊型에서 가장 컸으므로 이들 양자를 동시에 고려할 때 금후 西海岸과 脆弱地區型에 대해 防波堤施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東海岸과 都市近郊型에 대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地域에 대해 防波堤施設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護岸은 西海岸과 沿岸村落型에서 充足도가 작으므로 이들 지역에 施設을 우선적으로 늘려나가되 南海岸과 都市近郊型에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대한 施設擴充이 시급하다. 세째, 船着場은 海域別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立地類型別로는 沿岸村落型에서 작으므로 우선적으로 施設해 나가되 東海岸과 南海岸의 都市近郊型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施設擴充이 시급하다. 네째, 物揚場은 南海岸과 脆弱地區型에 우선적으로 施設해 나가되 특히 南海岸에서는 低所得漁村에 대한 施設擴充이 시급하다.

나. 漁船勢力과 動力化

1983年末 現在 우리나라의 漁船勢力은 <表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隻數로는 88,594隻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動力船이 전체의 78.3%인 69,338隻, 無動力船이 21.7%인 19,256隻이다. 또 總屯數는 828,348屯인데 이중 動力船屯數는 전체의 97.3%인 806,020屯, 無動力船屯數는 전체의 2.7%인 22,328屯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隻當屯數를 보면 全漁船平均으로는 9.3屯이나 動力船基準으로는 11.6屯, 無動力船基準으로

表 4-11 漁船勢力現況, 1983

單位: 隻, 屯, 屯/隻

			計	動力 船	無 動力 船
全 國	隻 數		88,594	69,338	19,256
	屯 數		828,348	806,020	22,328
	隻 當 屯 數		9.35	11.62	1.16
海 域 別	東 海 岸	隻 數	9,668	7,002	2,666
		屯 數	81,120	78,730	2,390
		隻 當 屯 數	8.39	11.24	0.90
	西 海 岸	隻 數	12,511	9,049	3,462
		屯 數	115,364	109,267	6,097
		隻 當 屯 數	9.22	12.08	1.76
	南 海 岸	隻 數	66,415	53,287	13,128
		屯 數	631,862	618,022	13,841
		隻 當 屯 數	9.51	11.60	1.05

資料: 農水産部, 農林水産統計年報, 1984.

는 1.2 屯이다.

이러한 漁船勢力 現況을 海域別로 보면 隻數 및 屯數에 있어서南海岸이 東海岸이나 西海岸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動力船이나 無動力船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漁船隻當屯數에 있어서는 西海岸의 경우 動力船平均이 12.1 屯이고 無動力船平均이 1.8 屯으로서 東海岸이나 南海岸에 비해서 大型化되어 있다.

한편, 앞의 漁船勢力은 遠洋漁船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주로沿岸漁業에 종사하고 있는 漁村契員 所有의 漁船勢力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이를 海域別로 보면 <表 4-12>와 같다. 첫째, 總漁船隻數에 대한 動力船隻數의 比率인 動力比率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高所得漁村이 71.6%, 低所得漁村이 63.5%로서 高低所得漁村間 격차는 8.1% 포인트로 나타났다. 海域別 動力化率 정도를 보면 西海岸이 가장 높으며 東海岸이 가장 낮는데, 高低所得漁村間의 차이는 西海岸이 14.8% 포인트로 가장

表 4-12 海域別 漁村契 漁船勞力

			動力化率 (%) ¹⁾	1人當隻數(隻)	1人當屯數(屯)
全	國	高所得(A)	71.6	0.60	2.62
		低所得(B)	63.5	0.59	1.52
		A - B	8.1	0.01	1.10
海 域 別	東海岸	高所得(A)	58.7	0.81	5.09
		低所得(B)	48.5	0.47	0.84
		A - B	10.2	0.34	4.25
	西海岸	高所得(A)	80.1	0.34	3.81
		低所得(B)	65.3	0.36	2.21
		A - B	14.8	△ 0.02	1.60
	南海岸	高所得(A)	70.6	0.68	1.88
		低所得(B)	65.1	0.63	1.44
		A - B	5.5	0.05	0.44

$$1) \frac{\text{動力船隻數}}{\text{總隻數}} \times 100$$

크다. 둘째, 漁村契員 1人當 隻數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거의 같은 水準을 보이고 있으나 海域別로 볼 때 東海岸과 南海岸이 많고 西海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高低所得漁村間 차이는 東海岸이 가장 심했다. 셋째, 漁村契員 1人當 屯數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高低所得漁村間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海域別로는 西海岸이 가장 컸고 南海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高低所得漁村間 차이는 東海岸이 월등히 컸다.

한편 이를 立地類型別로 보면 <表 4-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動力化率은 都市近郊型에서 높았고 沿岸村落型과 脆弱地區型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高低所得漁村間 차이는 脆弱地區型과 都市近郊型에서 각각 8.8%포인트, 8.7%포인트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表 4-13 立地類型別 漁村契 漁船勢力

		動力化率(%)	1人當隻數(隻)	1人當屯隻(屯)
都市近郊型	高所得(A)	84.2	0.47	7.87
	低所得(B)	75.5	0.43	1.80
	A - B	8.7	0.04	6.07
脆弱地區型	高所得(A)	69.3	0.71	1.05
	低所得(B)	60.5	0.47	1.16
	A - B	8.8	0.24	△ 0.11
沿岸村落型	高所得(A)	61.9	0.63	1.37
	低所得(B)	62.7	0.69	1.64
	A - B	△ 0.8	△ 0.06	△ 0.27

둘째, 漁村契員 1人當 隻數는 沿岸村落型이 가장 많았고 都市近郊型이 가장 적었는데 高低所得漁村間 차이는 脆弱地區型이 가장 컸다. 세째, 漁村契員 1人當屯數를 보면 都市近郊型이 기타의 類型에 비해 월등히 컸으며, 또한 高低所得漁村間의 차이도 가장 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動力化率은 東海岸과 沿岸村落型 漁村에서 가장 낮으므로 이들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漁船動力化 支援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西海岸과 脆弱地區型 및 都市近郊型 漁村에 대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漁船動力化를 위한 支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西海岸과 都市近郊型 漁村에 우선적으로 漁船隻數를 늘려야 할 것이며 東海岸과 脆弱地區型 漁村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의 漁船隻數增加支援을 강화해야 한다. 세째, 南海岸과 脆弱地區型 漁村에 대해 우선적으로 漁船大型化를 支援하되 東海岸과 都市近郊型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의 漁船大型化 支援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漁業外所得事業 參與程度

漁家에서의 漁業外所得事業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漁業 이외의 兼業을 말하는바, 이는 크게 農業과 其他兼業으로 나눌수 있다. 其他兼業은 다시 漁村工業과 漁村觀光關聯事業으로 나눌수 있는데, 이들은 아직 漁家の 全體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가. 農 業

農業은 漁業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 漁家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兼業家口이므로 農業은 漁家の 漁業外所得事業으로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는 크게 耕種과 畜産部門으로 나눌수 있다. 한편, 高低所得漁村 所得隔差要因의 하나로서 農業을 살펴봄에 있어 직접 高低所得漁村間 비교가 곤란하여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耕種部門은 다시 菜蔬類, 特用作物, 果實類의 3개 部門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道 전체의 발면적에 대한 品目別 栽培面積比率을 계산하고 당해 道內에서 몇개의 沿岸市郡을 표본으로 하여 그 沿岸市郡 전체의 발면적에 대한 品目別 栽培面積比率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를 海城別로 상호비교하였다. 다음 畜産部門에 대해서도 동일한 原理에 의해 飼育家口比率을 산정하여 비교했는데 耕種部門과의 다른점은 品種을 한우, 젓소, 돼지, 닭으로 나누었고, 밭面積 대신에 전체 家口數, 品目別 栽培面積 대신에 品種別 飼育戶數를 사용한 것 뿐이다.

이렇게 하여 산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우선 耕種部門 參與程度를 보면 <表 4-14>와 같다.

첫째, 菜蔬類를 보면 발면적에 대한 栽培面積의 비율이 전국 전체로 볼 때, 38.5%이나 전국 沿岸市郡으로는 28.8%로서 內陸地가 沿岸地域보다 높음을 알수 있다. 이를 海城別로 보면 栽培面積比率 자체는 南海岸이 가장 작았으며 海城全體와 沿岸市郡과의 차이는 西海岸과 南海岸에서 공히 10%포인트 정도로 컸다.

둘째, 特用作物を 보면 전국 전체는 栽培面積比率이 14.5%였으나 전

表 4-14 農産物 品目別 栽培面積 比率,¹⁾ 1982.

單位: %

		菜 蔬 類			特 用 作 物			果 實 類		
		計 (A)	沿岸市郡 ²⁾ (B)	A-B	計 (A)	沿岸市郡 (B)	A-B	計 (A)	沿岸市郡 (B)	A - B
全 國		38.5	28.8	9.7	14.5	18.4	△ 3.9	11.7	11.4	0.3
海 域 別	東 海 岸	36.0	35.9	0.1	10.8	4.2	6.6	15.7	12.3	3.4
	西 海 岸	46.0	35.9	10.1	14.0	10.5	3.5	8.9	6.7	2.2
	南 海 岸	33.0	23.0	10.0	18.3	26.1	△ 7.8	11.1	14.3	△ 3.2

1) $\frac{\text{栽培面積}}{\text{田面積}} \times 100$

2) 道別로 3 ~ 6 個의 沿岸市郡을 선택, 海域別로 平均한 것임.

資料: 各道統計年報, 1983 및 30 個市郡統計年報, 1983에서 작성.

국 沿岸市郡은 18.4 %로서 沿岸市郡의 栽培面積比率이 오히려 3.9 % 포인트 높았다. 이를 海域別로 보면 비율 자체는 南海岸이 가장 컸고 東海岸이 가장 작았으며, 海域全體와 沿岸市群의 차이를 보면 東海岸이 6.6 %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고, 南海岸의 경우 沿岸市群의 栽培比率이 오히려 7.8 %포인트 컸다.

세째, 果實類를 보면 전국전체는 栽培面積比率이 11.7 %였으나 전국 沿岸市郡은 11.4 %로서 그 차이는 별로 없었다. 海域別 栽培面積比率은 東海岸이 가장 컸고 西海岸이 가장 작았으나 海域全體와 沿岸市郡의 차이는 東海岸과 南海岸이 컸다. 이렇게 볼 때 菜蔬類에 대해서는 南海岸, 特用作物에 대해서는 東海岸, 果實類에 대해서는 西海岸의 漁家に 栽培支援을 우선적으로 할 必要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畜産部門에 대한 飼育家口比率은 <表 4-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한우를 보면 전국 전체와 전국 沿岸市郡間에는 1.6 % 포인트의 격차가 있는데 海域別로 飼育家口比率 자체에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海域全體와 海域別 沿岸市郡의 飼育家口比率의 차이는 南海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젓소는 전국 전체와 전국 沿岸市郡의 飼育家口比率, 海域別 比率 자체에의 크기, 海域全體와 海域別 沿岸市郡의 飼育比率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째, 돼지는 전국 전체보다 전국 沿岸市郡의 飼育家口比率이 크다. 그러나 東海岸은 海域別 比率이 가장 작을 뿐 아니라 海域全體와 海域別 沿岸市郡의 차이도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닭은 전국 전체와 전국 沿岸市郡 사이에 1.6 % 포인트 밖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海域別 飼育家口比率은 東海岸이 가장 작고, 海域全體와 海域別 沿岸市郡과의 차이는 南海岸에서 가장 컸다.

이상에서 볼 때 한우에 대해서는 南海岸, 돼지와 닭은 東海岸의 漁家に 대해서 飼育支援을 우선적으로 할 必要가 있다.

表 4 - 15 畜産物 品種別 飼育家口 比率, 1982.¹⁾

單位 : %

	한 우			젖 소			돼 지			닭		
	計 (A)	沿岸市郡 (B)	A - B	計 (A)	沿岸市郡 (B)	A - B	計 (A)	沿岸市郡 (B)	A - B	計 (A)	沿岸市郡 (B)	A - B
全國平均	16.1	14.5	1.6	0.4	0.4	0	8.2	11.3	△ 3.1	11.6	10.0	1.6
東 海 岸	17.8	16.2	1.6	0.1	0.1	0	3.1	2.6	0.5	6.1	3.0	3.1
西 海 岸	13.7	17.1	△ 3.4	0.8	1.0	△ 0.2	8.2	12.2	△ 4.0	10.1	14.5	△ 4.4
南 海 岸	17.6	12.3	5.3	0.2	0.2	0	12.7	13.9	△ 1.2	18.2	9.7	8.5

1) 飼育家口數

$$\frac{\text{飼育家口數}}{\text{全家口數}} \times 100$$

資料 : <表 4 - 14> 와 同一

나. 漁村工業

그동안 우리나라의 農漁村地域에 있어 工業化는 주로 農漁村 住民들의 遊休人力을 活用하여 農漁家の 所得増大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都市地域을 중심으로 한 工業化에 비해서는 그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農漁家の 所得増大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農漁村地域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온 工業化를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農水産部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農漁村副業團地造成을 들 수 있는데 그 전신은 1966~67년에 農村振興廳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던 農村副業團地 示範育成事業이며 1968년부터 農水産部에서 주관하여 農漁村副業團地造成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擴大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農漁村副業團地の 現況을 보면 <表 4-16>과 같다. 즉 1984年 현재 團地數는 總 429個인데 이중 漁村으로서 沿岸市郡에는 164個로 38.2%가 소재하고 있고 沿岸市邑面에는 21.7%인 93個가 소재하고 있다. 이를 業種別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民俗工藝가 175個로 가장 많고 農畜産團地가 15個로 가장 적으며, 沿岸市郡 및 沿岸市邑面 기준으로 볼 때는 民俗工藝가 가장 많았고 一般工産品團地가 가장 적었다.

둘째, 1973년부터 商工部에서 주관,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工場을 들 수 있는데 그 現況은 <表 4-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82年末 現在全國 새마을工場數는 總 730個인데, 이중 沿岸市郡에는 39.7%인 290個가 所在하며, 沿岸市邑面에는 14.0%인 102個가 所在하고 있다. 새마을工場數를 海域別로 보면, 全國 總計 및 沿岸市郡에 있어서는 西海岸에 가장 많이 所在하나, 沿岸市邑面만을 보면 南海岸에 가장 많이 所在하고 있다. 그리고 業種別로 보면 全國의으로는 一般工産品工場이, 沿岸市郡에서도 一般工産品工場이 제일 많으나, 沿岸市邑面에서는 食料品工場이 제일 많다.

새마을工場數를 業種別로 세분해 보면, 民俗工藝品 工場이 全國에 總 55個 있는데 이중 沿岸市郡에 27個, 沿岸市邑面에는 8個 所在한다. 食料品工場 總 96個중 沿岸市郡에 57個, 沿岸市邑面에 41個가 所在한다.

表 4-16 農産物 農漁村 副業園地 現況, 1984

	園 地 数 (個所)			参 与 戸 数 (戸)			生 産 額 (百萬円)			推 定 所 得 (百萬円)		
	全 國	沿岸市郡	沿岸市邑面	全 國	沿岸市郡	沿岸市邑面	全 國	沿岸市郡	沿岸市邑面	全 國	沿岸市郡	沿岸市邑面
計	429 (100.0)	164 (38.2)	93 (21.7)	11,564 (100.0)	4,402 (38.1)	2,913 (25.2)	61,402 (100.0)	23,432 (38.2)	12,426 (20.2)	19,235 (100.0)	6,728 (35.0)	3,442 (17.9)
民 俗 工 芸	175 (100.0)	65 (37.1)	37 (21.1)	4,736 (100.0)	1,614 (34.1)	930 (19.6)	22,944 (100.0)	6,897 (30.1)	3,178 (13.9)	9,072 (100.0)	2,893 (31.9)	1,330 (14.7)
食 品 加 工	116 (100.0)	54 (46.6)	35 (27.6)	2,718 (100.0)	1,085 (39.9)	735 (27.0)	18,468 (100.0)	11,756 (63.7)	6,911 (37.4)	4,580 (100.0)	2,072 (45.2)	1,246 (27.2)
織 維 織 物	35 (100.0)	10 (28.6)	4 (11.4)	1,816 (100.0)	981 (54.0)	858 (47.2)	4,162 (100.0)	1,022 (24.6)	335 (8.0)	1,506 (100.0)	359 (23.8)	220 (14.6)
農水産資材	58 (100.0)	19 (32.8)	8 (13.8)	1,245 (100.0)	387 (31.1)	170 (13.7)	6,351 (100.0)	1,886 (29.7)	943 (14.8)	1,857 (100.0)	632 (34.0)	199 (10.7)
一般工産品	30 (100.0)	6 (20.0)	2 (6.7)	593 (100.0)	109 (18.4)	55 (9.3)	4,887 (100.0)	1,351 (27.6)	573 (11.7)	1,442 (100.0)	483 (33.5)	177 (12.3)
農 畜 産	15 (100.0)	10 (66.7)	7 (46.7)	456 (100.0)	226 (49.6)	165 (36.2)	4,590 (100.0)	521 (11.4)	486 (10.6)	779 (100.0)	289 (37.1)	270 (34.7)

資料：農水産部, '84 農漁村副業園地事業計画。

表 4-17 새마을工場 現況, 1982

單位; 個, %

	合 計			民 俗 工 藝 品			食 料 品		
	總 計	沿 岸 市 郡	沿 岸 市 邑 面	總 計	沿 岸 市 郡	沿 岸 市 邑 面	總 計	沿 岸 市 郡	沿 岸 市 邑 面
全 國	730 (100.0)	290 (39.7)	102 (14.0)	55 (100.0)	27 (49.1)	8 (14.5)	96 (100.0)	57 (59.4)	41 (42.7)
東 海 岸	145	30	16	15	4	2	12	7	6
西 海 岸	392	135	22	27	15	2	37	15	4
南 海 岸	193	125	64	13	8	4	47	35	31

	纖 維 織 物			農 水 產 資 材			一 般 工 產 品		
	總 計	沿 岸 市 郡	沿 岸 市 邑 面	總 計	沿 岸 市 郡	沿 岸 市 邑 面	總 計	沿 岸 市 郡	沿 岸 市 邑 面
全 國	168 (100.0)	51 (30.6)	17 (10.1)	53 (100.0)	27 (50.9)	11 (20.8)	358 (100.0)	128 (35.8)	25 (7.0)
東 海 岸	59	7	3	7	3	3	52	9	2
西 海 岸	79	26	6	26	10	1	223	69	9
南 海 岸	30	18	8	20	14	7	83	50	14

資料; 商工部, 새마을工場便覽, 1983.3에서 作成

纖維織物工場은 總 168 個중 沿岸市郡에 51 個, 沿岸市邑面에는 17 個 所在하고 있다. 農水產資材 工場은 總 53 個중 沿岸市郡에 27 個, 沿岸市邑面에는 11 個 所在한다. 一般工產品 工場은 全國에 總 358 個 있는데, 이 중 沿岸市郡에 128 個, 沿岸市邑面에는 25 個 所在하고 있다.

세째, 農工地區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1983 年 制定된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에 의거하여 政府 各部處에서 지원하는 汎國家的인 農漁村工業化制度이다. 施行 첫해인 1984 年에는 7 個地區가 選定되었는데 漁村地域은 1 個地區도 선정되지 않았으나 금후 本事業이 漸次적으로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 漁村地域의 漁民들도 많은 혜택을 받게될 것이다.

네째, 특히 漁村地域에 대한 工業化, 즉, 漁村工業으로는 현재 水產廳

에서 食品加工과 工産工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水協에서는 새마을事業의 일환으로서 小規模의 工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현재 農漁村地域에서 시행중인 工業化 支援制度를 간략히 보았으나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要因으로서 漁村工場에의 참여 정도를 보기 위해서 漁村契當 工場數를 現地調査하였는데 그 결과는 〈表 4-18〉과 같다. 즉 전국적으로는 高所得漁村에 있어서 漁村契當 工場數가 1.7 個였으나 低所得漁村은 漁村契當 0.7 個로서 高低所得漁村間 격차가 매우 컸다. 이를 해역별로 보면 대체로 서해안에 있어서 工場數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高低所得漁村間 工場數에 있어서는 南海岸에서 그 차이가 가장 컸다. 立地類型別로는 脆弱地區型에서 高低所得漁村 모두 工場數가 가장 적었으며 高低所得漁村間에는 都市近郊型에서 그 차이가 가장 컸다.

表 4-18 漁村契當 工場數

單位：個

		高所得(A)	低所得(B)	B/A(%)
全 國 平 均		1.7	0.7	41.2
海 域 別	東 海 岸	1.4	1.0	71.4
	西 海 岸	0.8	0.8	100.0
	南 海 岸	2.0	0.6	30.0
立 類 型 別	都市近郊型	3.7	1.1	29.7
	脆弱地區型	1.0	0.5	50.0
	沿岸村落型	1.4	0.8	57.1

한편 漁村工業에 대한 參與程度는 漁村所在工場當 稼動日數 및 從事者數의 차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各 工場에 있어서 稼動日數나 從事者數가 많을수록 漁村工業에 대한 漁家の 參與可能性이 커지기 때문이다. 漁村所在工場에 있어서 年稼動日數와 平均從事者數를 現地調査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表 4-19〉이다. 表에 따라 먼저 工場當 稼動日數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高所得漁村이 182 日로서 低所得漁村의 167 日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海域別로 보면 西海岸에 있어서 稼動日數가 가장 적었으며 高低所得漁村間의 차이는 동해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表 4-19 漁村契 所在 工場當 年稼働日數 및 平均從事者數

單位；日，名

		稼 動 日 數			從 事 者 數		
		高所得 (A)	低所得 (B)	B/A (%)	高所得 (A)	低所得 (B)	B/A (%)
全 國 平 均		182	167	91.8	9.0	7.8	86.7
海 域 別	東 海 岸	222	161	72.5	8.4	7.9	94.0
	西 海 岸	142	158	111.3	9.0	11.0	122.2
	南 海 岸	181	160	88.4	9.1	6.9	75.8
立 地 類 型 地 別	都市近郊型	209	189	90.4	9.8	8.8	89.8
	脆弱地區型	165	170	103.0	8.6	4.9	57.0
	沿岸村落型	163	158	96.9	9.5	8.0	84.2

다. 立地類型別로는 沿岸村落型 漁村의 稼働日數가 적었는데 高低所得漁村間에는 都市近郊型에서 다소 차이는 있었다.

다음 平均從事者數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역시 高所得漁村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海域別로 從事者數 자체에 큰 차이는 없으나 高低所得 漁村間에는 南海岸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이를 立地類型別로 보면 脆弱地區型에서 所在工場의 從事者數가 가장 적었을 뿐 아니라 高低所得 漁村間 차이도 가장 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첫째, 漁村地域에 대한 工場誘致는 海域別로는 西海岸이 가장 시급한데 南海岸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 漁村地域에 대한 工場誘致가 중요하다. 또 立地類型別로는 脆弱地區型에 工場誘致가 가장 시급하나 都市近郊型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 漁村地域에 工場誘致가 필요하다. 둘째, 既存工場에 대한 支援 우선순위를 보면 海域別로는 西海岸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漁村觀光關聯事業

漁村地域은 觀光資源이 풍부한데 이러한 立地與件을 최대한로 活用한다면 漁村觀光이 漁家所得増大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漁村觀光地를 크게 海水浴場과 바다 낚시터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主要 海水

浴場現況을 보면 <表 4-20>과 같다. 즉 전국적으로 主要 海水浴場數는 110 個 정도 되는데 海域別로는 南海岸이 가장 많아 전체의 43.6 % 인 48 개가 입지하고 있고, 西海岸이 가장 적어 26 개가 입지하고 있다.

表 4-20 主要 海水浴場 現況

單位 ; 個所

	計	自然條件		
		良好	普通	不良
全 國	110 (100.0)	39 (100.0)	51 (100.0)	20 (100.0)
東 海 岸	36 (32.7)	13 (33.3)	17 (33.3)	6 (30.0)
西 海 岸	26 (23.6)	9 (23.1)	12 (23.5)	5 (25.0)
南 海 岸	48 (43.6)	17 (43.6)	22 (43.1)	9 (45.0)

한편 各 海水浴場別로 白砂場의 크기, 水深, 傾斜度, 水溫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自然環境을 良好, 普通, 不良으로 분류해 보았는데 그 分布狀況이 海域別 海水浴場數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 主要 바다낚시터를 보면 <表 4-21>에서와 같이 전국적으로 대

表 4-21 主要 바다 낚시터 現況

單位 ; 個所

	釣 況			
	計	良 好	普 通	不 良
全 國	104 (100.0)	49 (100.0)	42 (100.0)	13 (100.0)
東 海 岸	35 (33.7)	11 (22.4)	19 (45.2)	5 (38.5)
西 海 岸	21 (20.2)	8 (16.3)	10 (23.8)	3 (23.1)
南 海 岸	48 (46.1)	30 (61.2)	13 (40.0)	5 (38.5)

개 104 개 정도였는데, 이중에서 전체의 46.1 %인 48 個가 南海岸에 있었고 西海岸이 전체의 20.2 %인 21 個로서 가장 적었다. 바다낚시터도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釣況을 분류해 본 결과 釣況이 비교적 양호한 낚시터는 49 個로 나타났는데 海域別로는 南海岸이 전체의 61.2 %인 30 個로 가장 많았으며 西海岸이 8 個로 가장 적었다.

한편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의 要因으로서 漁村觀光關聯事業에 대한 參與程度를 보기 위해서 漁村契所在 觀光關聯事業體數와 事業體當 營業日數 및 從事者數에 대해 現地調査를 실시했는데 먼저 漁村契所在 觀光關聯事業體數를 보면 <表 4-22>와 같다. 表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漁村契當 事業體數가 高所得漁村에 있어서는 13.6 個였으나 低所得漁村에서는 9.9 個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海域別로는 南海岸에 있어 高低所得漁村 모두

表 4-22 漁村契所在 觀光關聯事業體數¹⁾

單位：個

			高所得(A)	低所得(B)	B/A(%)
全 國 平 均			13.6	9.9	72.8
海 域 別	東 海 岸		38.9	13.6	35.0
	西 海 岸		16.1	14.9	92.5
	南 海 岸		8.8	7.3	83.0
立 類 型 地 別	都 市 近 郊 型		27.6	19.6	71.0
	脆 弱 地 區 型		5.0	8.6	172.0
	沿 岸 村 落 型		8.3	8.0	96.4

1) 民泊, 賣店, 飲食店(횃집), 낚시배 運營 포함

적었는데 高低所得漁村間에는 東海岸에서 그 차이가 가장 심했다. 立地類型別로는 脆弱地區型이 가장 적었으며 高低所得漁村間에는 都市近郊型에서 그 차이가 가장 심했다.

다음 漁村契所在 事業體當 年營業日數 및 平均 從事者數를 조사한 결과는 <表 4-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첫째 營業日數에 있어 전국적으로는 高低所得漁村間 거의 같았으며 海域別로는 南海岸이 營業日數가 가

장 짧았고 高低所得漁村間の 차이는 가장 컸다. 立地類型別로는 沿岸村落型에서 가장 짧았고, 高低所得漁村間에는 都市近郊型에서 그 차이가 가장 컸다. 둘째, 從事者數에 있어서는 海域別, 立地類型別로 從事者數 자체에 있어거나 高低所得漁村間에 있어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表 4-23 事業體當年營業日數 및 平均從事者數

單位：日，名

		營 業 日 數			從 事 者 數		
		高所得 (A)	低所得 (B)	B/A (%)	高所得 (A)	低所得 (B)	B/A (%)
全 國 平 均		117	113	96.6	2.4	2.1	87.5
海 域 別	東 海 岸	137	138	100.7	2.3	1.9	82.6
	西 海 岸	129	117	90.7	2.5	2.4	96.0
	南 海 岸	106	91	85.8	2.4	2.1	87.5
立 類 型 別	都市近郊型	223	140	62.8	2.7	2.0	74.1
	脆弱地區型	103	113	109.7	2.4	2.1	87.5
	沿岸村落型	92	97	105.4	2.1	2.2	104.8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볼 때 觀光事業體에 대한 지원은 南海岸과 脆弱地區型漁村에서 가장 시급하나, 東海岸과 都市近郊型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대한 觀光事業施設の 支援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 既存 觀光關聯事業體에 대해서는 南海岸과 沿岸村落型漁村에 우선적으로 支援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都市近郊型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대한 支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所得事業 支援程度

어떤 事業에 있어거나 이를 통하여 所得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生産手段, 生産基盤施設 및 資金이 필요하다. 그런데 특히 農業이나 漁業과 같은 第1次 産業에 있어서는 이들 生産要素를 自力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政府 및 公共團體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支援의 大小는 所得水準의 高低와 직결될 수 있다.

漁家나 漁村에 있어서의 所得事業支援은 크게 政府投融資事業, 營漁資金供給 및 漁村 새마을事業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 政府投融資事業과 營漁資金供給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 보고 나서 高低所得漁村別로 漁村 새마을事業의 支援程度를 비교하기로 한다.

가. 政府投融資事業

政府投融資事業이란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事業部門에 投資 또는 融資의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對象事業에는 收益事業도 있으나 非收益의 事業도 있다.

1980 年 이래로 政府(水産廳)에서 水産部門에 대해 投融資事業으로 집행한 實績을 보면 <表 4 - 24>와 같다. 즉 1980 年에 總 38,614 百萬元을 지원하였으나 1981 年에 49,301 百萬元, 1982 年에 58,542 百萬元, 1983 年에 58,625 百萬元으로서 1983 年을 제외하고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投融資事業費의 事業部門別 執行實績을 보면 事業部門別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年別로 큰 변동이 없는데, 投融資事業費 중에서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事業部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年別로 投融資事業費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漁港施設로서 1983 年을 기준으로 할 때 18,191 百萬元이 집행되었는데 第 2 種漁港(防波堤築造), 小規模漁港(船着場 및 物揚場築造)施設이 이에 포함되며 이들 事業은 國庫補助 50%, 地方費補助 50%로 지원된다.

漁港施設 다음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漁撈施設로서 1983 年 10,558 百萬元이 집행되었는데 이에선 老朽漁船代替, 動力改良, 裝備改良(30W 無電機), 기타 韓國漁船協會 運營費補助가 포함된다. 이들 事業別 支援條件을 보면 老朽漁船代替와 動力改良은 國庫補助 20%, 融資 60%, 自擔 20%이고, 協業漁船建造가 國庫補助 30%, 融資 60%, 自擔 10%이며 韓國漁船協會 運營을 위하여도 상당액을 支援하고 있다. 세번째로 많은

表 4-24 水產部門 政府投融資事業實績

單位：百萬韓

	1980～83 合計	1980	1981	1982	1983
合 計	205,082 (100.0)	38,614 (100.0)	49,301 (100.0)	58,542 (100.0)	58,625 (100.0)
漁 業 技 術 訓 練	4,756 (2.3)	878 (2.3)	1,120 (2.3)	1,521 (2.6)	1,237 (2.1)
增 殖 事 業	18,105 (8.8)	3,338 (8.6)	3,179 (6.4)	4,432 (7.6)	7,156 (12.2)
漁 港 施 設	62,348 (30.4)	11,446 (29.6)	15,137 (30.7)	17,574 (30.0)	18,191 (31.0)
漁 撈 施 設	31,468 (15.3)	4,057 (10.5)	7,744 (15.7)	9,109 (15.6)	10,558 (18.0)
內 水 面 開 發	3,289 (1.6)	689 (1.8)	1,048 (2.1)	999 (1.7)	553 (0.9)
遠 洋 漁 業 開 發	1,733 (0.8)	109 (0.3)	522 (1.1)	727 (1.2)	375 (0.6)
資 源 保 護	10,531 (5.1)	870 (2.3)	1,436 (2.9)	3,984 (6.8)	4,241 (7.2)
水 產 物 流 通 施 設	17,796 (8.7)	5,523 (14.3)	4,343 (8.8)	5,281 (9.0)	2,649 (4.5)
水 產 資 金 利 差 補 填	25,371 (12.4)	5,572 (14.4)	7,187 (14.6)	5,837 (10.0)	6,775 (11.6)
漁 業 指 導	20,755 (10.1)	4,192 (10.9)	5,235 (10.6)	6,356 (10.9)	4,972 (8.5)
漁 家 副 業	1,633 (0.8)	406 (1.1)	632 (1.3)	595 (1.0)	-
試 驗 研 究	6,802 (3.3)	1,439 (3.7)	1,620 (3.3)	1,968 (3.4)	1,775 (3.0)
淡 水 魚 試 驗 및 普 及	495 (0.2)	95 (0.2)	98 (0.2)	159 (0.3)	143 (0.2)

資料：水産廳，水産業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1981～1984.

資金이 지원된 事業部門은 1983 年 7,156 百萬元이 집행된 增殖事業으로서, 細部事業으로는 主要貝類, 우렁쟁이 養殖, 高級魚類 蓄養, 海苔冷凍網 등의 養殖漁場 開發事業, 海苔冷凍網, 貯藏庫, 海苔綜合處理施設, 전복 培養場 등의 養殖基盤施設 확충으로 支援條件은 모두 國庫補助 20%, 融資 50%, 地方費補助 10%, 自擔 20%로 되어 있다. 水産資金 利差 補填 部門에는 네번째로 많은 6,775 百만원의 資金을 지원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船員共濟料 補助(國庫補助 30%, 自擔 70%), 颱風被害漁民 約定利子補助(國庫補助 100%), 政策資金支援金利와 一般金利利差 補填(國庫補助 100%) 部門에 지원하였다. 다섯째로 漁業指導部門에 4,972 百만원의 資金을 지원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漁船無線局 人件費補助, 乘船指導員 人件費補助, 漁業無線局 小型無線機設置, 漁業無線局 移設 및 老朽裝備代替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事業別 支援條件은 漁業無線局 小型無線機設置의 國庫補助 80%, 融資 20%를 제외한 기타에 있어서는 전부 國庫補助 100%이다. 여섯번째로 資源保護에 4,241 百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는 人工魚礁 시설, 古船魚礁, 대구人工受精卵 放流, 種苗培養場 施設 등이 포함된다. 다음 水産物流通施設에도 2,649 百만원의 資金이 지원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委販場, 綜合魚市場, 給油給水施設, 漁船簡易修理所 등인데, 그 支援條件은 모두 國庫補助 30%, 融資 40%, 自擔 30%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增殖事業에 있어 1983 년에 投融資된 資金의 비중이 전체의 12.2%로 높아졌고, 資源保護事業에 있어 매년 그 비중이 커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잡는 漁業에서 기르는 漁業’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方針이 구체적으로 事業支援에서 나타나고 있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다.

나. 營漁資金供給

漁家 혹은 漁村所得의 増大를 위해서는 政府投融資 事業에 의한 支援도 중요하나 실제 漁民들이 漁業을 함에 있어 크게 애로로 느끼는 營漁資金의 부족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零細한 漁民들로서는 漁業에 필요한 資金을 조달하기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므로 營漁資金의 供給은 금후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인데 그 供給規模 정도가 漁家所得增大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명백한 사실이다.

최근 몇년간의 營漁資金 供給狀況을 살펴 보면 <表 4 - 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에 의하면 1980 년에 總 1,200 億원의 營漁資金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同年 總所要額의 40.6%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 후 營漁資金 總所要額이 증가함에 따라 總供給額도 增額 공급되었는데 供給額 증가 比率이 所要額 증가 比率 보다 다소 커서 1983 년에는 供給率이 46.9%였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營漁資金의 供給率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沿近海 漁業部門에 있어서 供給額의 증가가 큰데 그 主原因이 있는 것으로

表 4-25 營漁資金 供給 狀況

單位: 億圓

			1980	1981	1982	1983	年 增 加率(%)
	總 所 要 額		2,955	3,551	4,180	4,625	16.1
	總 供 給 額		1,200	1,550	1,850	2,170	21.8
	供 給 率 (%)		40.6	43.6	44.3	46.9	-
沿 近 海	所 要 額		1,951	2,246	2,744	3,056	16.1
	供 給 額		950	1,250	1,500	1,800	23.7
	供 給 率 (%)		48.7	55.7	54.7	58.9	-
	供 財 源	財 政 資 金	95	138	176	214	31.1
		韓 銀 借 入 金	380	490	610	660	20.2
遠 洋		水 協 資 金	475	622	714	926	24.9
	所 要 額		1,004	1,305	1,436	1,569	16.0
	供 給 額		250	300	350	370	14.0
	供 給 率 (%)		24.9	23.0	24.4	23.6	-
	供 財 源	韓 銀 借 入 金	106	115	182	184	20.2
		水 協 資 金	144	185	168	186	8.9

資料: 水産廳, 水産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81 ~ 1984

(年 23.7%) 이러한 사실은 1980년에 沿近海漁業部門에 所要額의 48.7%에 해당하는 950億원의 營漁資金을 공급하였으나 1983년에는 1,800億원을 공급함으로써 供給率이 58.9%로 증가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營漁資金의 供給財源을 보면 沿近海漁業에서는 財政資金 韓國借入金 및 水協自體造成資金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遠洋漁業部門에서는 韓銀借入金과 水協自體造成資金으로 충당하고 있다.

營漁資金供給財源을 沿近海 漁業部門에 대해서만 살펴 보면 水協自體造成資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韓銀借入金이며 財政資金이 가장 적다. 또 財源別 年增加率을 보면 財政資金이 31.1%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水協自體造成資金으로 24.9%였고, 韓銀借入金이 20.2%로서 가장 작았다.

다. 漁村 새마을事業

1972년부터 시작된 漁村 새마을事業이 우리의 漁村生活에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즉 漁村 새마을事業이 시작되기 이전만해도 우리의 漁村生活은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도 별로 없이 단순한 生計維持的 生活을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1972年 自助, 自立, 協同精神을 기치로 내걸고 物質的 支援과 精神啓發支援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침체해 있던 어촌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그 후로도 새마을事業은 많은 변천을 겪으면서 계속 추진되어 왔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는 漁村所得増大事業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現行 漁村 새마을事業 推進體系를 보면 水産廳에서 政府投融資事業 중 일부를 漁村 새마을事業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水協에서도 독자적으로 새마을事業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의 漁村 새마을事業(水産廳, 水協事業 合計) 推進實績을 보면 <表 4-26>과 같다. 表에 의하면 1980년에 漁村 새마을事業資金으로 8,044百萬원이 지원되었는데 1981年과 1982년에는 資金이 增額되어 각각 10,468百萬, 11,056百萬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1983년에는 支援金額이 감소하여 7,939百萬원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漁村 새마을事業은 크게 生産基盤事業, 所得増大事業, 環境改善

表 4-26 漁村새마을事業 支援實績

單位：百萬元

		1980	1981	1982	1983
合 計		8,044	10,468	11,056	7,939
生産基盤事業	小 計	3,104	4,907	5,043	2,765
	小規模漁港	559	258	458	417
	協業漁船建造	633	2,321	1,851	1,527
	漁業基盤施設	805	1,117	990	-
	漁業附帶施設	1,107	1,211	1,744	821
所得増大事業	小 計	3,907	3,133	2,910	3,648
	內水面開發	574	648	621	508
	水産増養殖	1,058	1,017	917	984
	資源造成	1,507	744	610	653
	漁家副業	768	724	762	1,503
環境改善事業		457	430	363	-
精神啓發事業	小 計	576	1,998	2,740	1,526
	漁村技術指導	119	110	149	132
	對漁民教育弘報	300	363	254	397
	對漁民奉仕活動	139	1,502	2,313	983
	水産人, 漁民後繼者教育	18	23	24	14

資料：水産廳，漁村새마을運動 綜合指針，1981～1984

事業，精神啓發事業의 4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生産基盤事業을 보면 1980 年에 3,104 百萬元이 지원되었는데 1981 年과 1982 年에 대폭 증가하여 4,907 百萬元과 5,043 百萬元에 이르렀으나 1983 年에는 다시 2,765 百萬元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生産基盤事業은 다시 小規模漁港，協業漁船建造，漁業基盤施設，漁業附帶施設의 4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이 중 小規模漁港과 協業漁船建造는 水産廳에서，漁業基盤施設과 漁業附帶施設은 주로 水協에서 주관，지원하고 있다. 이들 구체적인 事業 中에서는 매년 協業漁船建造，漁業附帶施設 등의 순으로 많은 資金이 지원되고 있다.

둘째，所得増大事業을 보면 1981～1982 年 동안 生産基盤事業 다음으로 많은 資金이 지원되었으나 1983 年에는 가장 많은 資金이 지원되었다. 所

得増大事業은 다시 內水面開發, 水産増養殖, 資源造成 및 漁家副業으로 나눌 수 있는데 內水面開發과 水産増養殖은 水産廳에서, 資源造成은 水産廳과 水協에서, 漁家副業은 水協에서 주관 지원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인事業 중에서는 매년 대체로 水産増養殖에 가장 많은 資金을 지원했고 그 다음이 資源造成이었으나, 1983 년에는 漁家副業의 支援金額이 가장 많았다.

세제, 環境改善事業은 水協에서 주관, 지원하고 있는데 1980 年 457 百萬원을 지원한 이후 지원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1983년에는 지원이 없었다.

네제, 精神啓發事業에 있어서는 1980 년에 576 百萬원을 지원한 이래로 지원이 매년 대폭 증가하여 1981 年과 1982 年에 각각 1,998 百萬원, 2,740 百萬원에 이르렀고 1983 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1,526 百萬원을 지원하였다. 精神啓發事業은 다시 漁村技術指導, 對漁民教育弘報와 對漁民奉仕活動, 水産人·漁民後繼者 教育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漁村技術指導는 水産廳에서, 對漁民教育弘報와 對漁民 奉仕活動은 水協에서 주관 지원하고 있으며 水産人·漁民後繼者教育은 水産廳과 水協에서 같이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구체적인事業 중 對漁民奉仕活動에 1980 년에는 139 百萬원을 지원하였으나 그후 지원이 대폭 증가하여 1981 년에는 1,502 百萬원, 1982 년에는 무려 2,313 百萬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3 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983 百萬원을 지원하였다.

漁村 새마을事業은 전부가 漁家 또는 漁村所得増大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所得増大事業이다. 그런데 <表 5 - 26>의 所得増大事業 중 內水面開發, 水産増養殖, 資源造成은 政府投融資事業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서는 水協에서 주관 지원하고 있는 漁家副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이러한 漁家副業은 다시 農畜産, 漁村工業 및 漁村觀光關聯事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農畜産에 대한 漁村 새마을事業 支援實績을 보면 <表 4 - 27>과 같다. 즉 1980 년에 한우에 대해서 334 百萬원을 지원한 이해 1981 년에는 한우와 염소에 491 百萬원, 1982 년에 한우에 704 百萬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다가

1983 年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한우에만 무려 1,347 百萬원을 지원하였으며 염소에도 10 百萬원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農畜産支援品目 중 염소는 水協 자체자금으로 補助 또는 融資하고 있으나, 한우는 農水産部에서 資金을 지원하고 實需要者の 선정 및 사후관리는 水協에서 하고있다.

表 4-27 農畜産에 대한 漁村새마을事業 支援實績

單位：件，百萬元

年 度	細 部 事 業 名	件 數	事 業 費
合 計		1,472	2,886
1980	한 우	60	334
1981	小 計	59	491
	한 우	58	488
	염 소	1	3
1982	한 우	66	704
1983	小 計	1,287	1,357
	한 우	1,187	1,347
	염 소	10	10

資料：水協中央會

다음 漁村工業에 대한 漁村 새마을事業을 보면 <表 4-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 年에 魚類乾燥場, 鹽藏施設 등 5 個부문에 119 百萬원을 지원하였고 1981 年에는 海苔綜合處理場, 魚類乾燥場 등 4 個부문에 201 百萬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1982 年과 1983 年에는 각각 31 百萬원과 35 百萬원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工場의 직접운영을 희망하는 漁民들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表 4-29>를 통하여 漁村 觀光關聯事業에 대한 漁村 새마을事業을 보면 1980 年에 休憩所, 民泊 등에 305 百萬원을 지원하였는데 1981, 1982 年에 지원이 대폭 감소하였다가 1983 年에 다소 늘어나서 113 百萬원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漁村觀光關聯事業에 대한 支援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漁村工業에서와 마찬가지로 觀光關聯事業體를 직접운영하고자 하는 漁民들의 數가 감소한데 그 主要原因이 있다.

한편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要因의 하나로서 漁村契員 1人當 漁村 새마을事業 支援規模를 보면 다음 <表 4-30>과 같다. 즉 1979~1983 年間 高所得漁村의 漁村契員 1人當에 대해서는 135千원이 지원되었으나 低所得漁村에 대해서는 漁村契員 1人當 197千원이 지원됨으로써 低所得 漁村에 더 많은 資金이 지원되었다. 따라서 이 결과만으로 보아서는 漁村 새마을事業 資金의 大小가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要因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低所得漁村에 더 많은 資金이 지원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므로 그 이전 상황까지 고려할 때 그 영향이 컸던, 작았던 간에 漁村所得水準決定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表 4-28 漁村工業에 대한 漁村새마을事業 支援實績

單位：件，百萬元

年 度	細 部 事 業 名	件 數	事 業 費
合 計		31	386
1980	小 計	13	119
	魚 類 乾 燥 場	7	52
	鹽 藏 施 設	1	10
	海 藻 類 加 工	1	10
	簡 易 冷 藏	2	28
	보 로 크 工 場	2	20
1981	小 計	12	201
	海 苔 綜 合 處 理 場	3	128
	魚 類 乾 燥 場	5	45
	簡 易 冷 藏	2	12
	農 水 產 資 材	2	15
1982	小 計	3	31
	동 작 자 숙 장	1	8
	食 品 加 工	1	14
	簡 易 冷 藏	1	9
1983	食 品 加 工	3	35

資料：水協中央會

表4-29 漁村觀光關聯事業에 대한 漁村새마을사업 支援實績

單位：件，百萬元

年 度	細 部 事 業 名	件 數	事 業 費
合 計		28	479
1980	小 計	17	305
	休 憩 所	6	136
	民 泊	2	53
	直 賣 場	1	20
	觀 光 船	8	97
1981	小 計	3	33
	休 憩 所	2	20
	觀 光 船	1	13
1982	小 計	2	28
	宿 泊 施 設	1	25
	水 旅 館	1	3
	小 計	6	113
1983	休 憩 所	3	57
	觀 光 船	3	56

資料：水協中央會

表4-30 漁村새마을사업의 漁村役員 1人當 支援規模, 1979~1983年 合計

單位：千圓

		高 所 得 (A)	低 所 得 (B)	B/A(%)
全 國 平 均		135	197	145.9
海 域 別	東 海 岸	253	290	114.6
	西 海 岸	122	231	189.3
	南 海 岸	128	163	127.3
立 類 型 地 別	都 市 近 郊 型	157	167	106.4
	脆 弱 地 區 型	103	217	210.7
	沿 岸 村 落 型	140	199	142.1

資料：水協中央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表에 의하여 漁村 새마을事業의 漁村契員 1人當 支援規模를 먼저 海域別로 보면 대체로 東海岸이 高低所得漁村 모두 가장 많았고, 南海岸이 가장 적었다. 또 立地類型別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어느 類型이 많고 적었는가를 알기 어려우나 低所得漁村에 있어서는 都市近郊型이 가장 적었다.

이상에서 볼때 금후 南海岸에 대해서 漁村 새마을事業支援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며 都市近郊型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第 5 章

低所得漁村 育成方案

1. 低所得漁村育成的 基本方向

(分析結果의 要約)

지금까지 漁家所得實態分析를 통하여 漁家所得의 水準과 構造를 漁業階層別 및 他部門과 비교해 보았으며, 漁家所得 決定要因分析를 통하여 漁業階層別로 各漁家が 어떤 部門에 참여하는 것이 漁家所得增大에 바람직한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要因을 비교함으로써 금후 低所得漁家の 所得增大을 위하여 海域別, 立地類型別로는 어디부터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는데, 여기서는 이들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함으로써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즉 漁家所得實態分析結果를 통해서는 漁家所得의 所得部門別 增大方案을, 漁家所得決定要因分析結果를 통해서는 漁業階層別 漁家所得增大方案을,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要因分析結果를 통해서는 低所得漁家の 所得增大을 위한 海域別 立地類型別 우선 지원순위를 각각 살펴 보고자 한다.

가. 漁家所得의 所得部門別 增大 方案

그동안 漁家所得은 農家所得 및 都市勤勞者家口所得에 비해 한번도 높

있던 적이 없으며 그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다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農漁家の 所得構造를 비교해 볼 때 主業所得 및 農(漁)業外所得 모두 農家보다 적고 그 增加率도 작았다. 즉 1983年 漁家の 漁業所得은 2,570千원이었으나 農家の 農業所得은 3,331千원이었으며 이들 所得의 1977~83年 年平均 增加率도 漁業所得은 19.3%였으나, 農家は 21.5%였다. 또 1983年 漁家の 漁業外所得은 1,539千원인데 반해 農家の 農業外所得은 1,797千원으로 漁家の 漁業外所得은 農家の 農業外所得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977~83年 年平均 增加率을 보더라도 漁家は 20.6%로서 農家の 28.6%에 비해 훨씬 낮다.

漁家の 漁業所得이 農家の 農業所得보다 적을 뿐 아니라 그 增加率도 낮은 것은 첫째 二重穀價制實施로 農家 農業所得의 대증을 이루고 있는 米穀所得이 어느 정도 보장 받고 있으며, 둘째 漁業은 그 特性上 農業에 비해 월등히 많은 經營費를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 漁業經營費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후 漁家所得増大를 위한 一方案으로서 漁業所得의 増大를 위해서는 漁獲物 價格支持 내지 價格安定에 대한 支援 및 漁業經營費節減을 위한 支援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 漁家の 漁業外所得이 農家の 農業外所得보다 훨씬 적고 그 增加率도 낮은 이유를 보면 兼業所得은 1983年 漁家が 771千원으로서 農家の 183千원보다 많으나, 事業外所得으로서 勞賃, 給料, 送金, 被贈 및 補助에 있어서는 農家が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즉 1983年 漁家に 있어서 勞賃은 206千원, 給料가 114千원, 送金·被贈 및 補助는 309千원, 기타 事業外所得이 139千원으로 漁業外 所得中 事業外所得合計가 768千원이었으나 農家に 있어서는 각각 289千원, 781千원, 885千원, 60千원으로 農業外所得中 事業外所得合計가 1,615千원이었다. 따라서 금후 漁家所得 増大를 위해서는 漁業所得 뿐 아니라 漁業外所得部門에 있어서도 所得 増大가 關連적으로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漁家の 農業生産性을 향상시켜야 하며,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 畜産物品種의 飼育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특히 漁業外勞賃 및 給料의 増大를 위해서 漁村地域에 工場誘致와 觀光事業體施設 및 그 運營에 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漁業階層別 漁家所得 増大方案

漁家所得決定要因分析을 통해서 볼 때 漁業階層別로 漁家所得増大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部門의 참여나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漁船非使用家口에서는 勞賃이나 給料收入을 위한 事業外收入部門, 漁業部門, 農業部門의 순서로 참여 또는 지원하는 것이 漁家所得増大에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部門間의 所得増大效果에 그리 큰 차이가 없으므로 立地與件 등 諸般與件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漁業部門 중에서도 養殖漁業部門에 참여하는 것이 漁撈漁業에 참여하는 것보다 월등히 나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農業部門 중에서는 畜産部門 참여가 耕種部門 참여보다 다소 나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자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한 편 漁船非使用家口에서 漁家所得의 漁業生産量에 관한 彈性値는 動力船使用家口 다음으로 크므로 資源造成事業 등으로 第1種 共同漁場에의 生産力을 높혀 나가는 것이 漁家所得増大에 기여하는 바가 크나 漁業部門에 대한 勞動投下量을 늘리는 것은 他部門을 위축시킴으로써 漁家所得増大와 相關關係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無動力船使用家口에 있어서도 역시 漁船非使用家口와 마찬가지로 事業外收入部門에 참여하는 것이 漁家所得増大에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農業部門, 漁業部門의 순서를 보였는데, 農業部門과 漁業部門 참여의 漁家所得増大效果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 또 農業部門 중에서는 耕種部門에의 참여는 어느 정도 農業所得増大에 기여하나, 畜産部門에서의 참여는 農業所得増加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漁業部門 중에는 養殖業部門에의 참여가 漁撈漁業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소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無動力船使用家口에 있어 漁業部門 참여는 漁家所得増大效果가 크지 않음으로써, 漁業生産量増加와 漁業勞動投下量을 늘리는 것도 漁家所得増大에 크게 도움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無動力船의 大型化는 漁業經營費를 크게 상승시킴으로써 오히려 漁家所得

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금후 無動力漁船의 大型化는 억제되어야 하며 漁船의 動力化가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세째, 動力船使用家口에 있어서는 漁家所得増大를 위해 어느 部門에의 참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기 어려우나 其他兼業 및 事業外收入部門에의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漁業 및 農業部門에 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漁業部門 중에는 漁撈漁業의 專業化 보다는 養殖業에의 참여를 통한 漁業多邊化가 바람직하며, 農業部門 중에는 耕種 및 畜産部門 모두 漁家所得増大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動力船使用家口에서 漁業部門 참여가 漁家所得増大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므로 漁業生産量 및 漁業勞動投下量 증가와 漁船의 大型化의 漁家所得増大效果 역시 全漁業階層中 가장 컸다.

네째, 養殖業家口를 보면 農業部門 참여의 漁家所得増大效果가 가장 컸고 그 다음 事業外收入部門, 漁業部門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農業部門 중에는 耕種部門 참여의 農業所得増大效果가 他漁業階層에 비해 월등히 컸으며 畜産部門에의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養殖業家口の 漁業部門 참여의 漁家所得増大效果가 낮은 관계로 漁業生産量増加 및 漁船大型化의 漁家所得増大效果가 낮았다. 따라서 금후 養殖業家口에 있어서는 生産量増加보다 生産物 價格支持 내지 安定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低所得漁家の 育成을 위한 우선지원 순위

漁家所得決定要因의 分析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漁業階層別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실제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즉 우리 나라는 海域別, 漁村立地類型別로 漁業形態가 매우 다르고 同一 漁業形態라 하더라도 對象魚種, 漁業方法, 經營規模 차이가 심하므로 漁業階層別로 分析한 결과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要因을 立地與件, 漁業參與程度, 漁業施設程度, 漁業外所得事業參與程度, 所得事業支

援程度の 5 가지로 크게 나누어 高低所得漁村間 이들 要因에 차이가 큰 海域 또는 立地類型의 漁村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高低所得漁村間 所得隔差要因 分析結果와 海域別, 立地類型別 지원 우선순위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立地與件으로서 漁場面積과 漁場生産性を 보면 漁場面積은 高低所得漁村間 큰 차이는 없는 반면, 漁場生産性에는 高低所得漁村間 차이가 크므로 금후 漁場開發보다는 漁場生産性 向上이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海域別로는 東海岸 및 西海岸, 立地類型別로는 脆弱地區型의 漁村에 漁場生産性 向上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며, 東海岸과 都市近郊型漁村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漁業參與程度로서 먼저 漁業從事期間을 보면 高低所得漁村間 별 차이가 없어 이것이 高低所得漁村의 所得隔差要因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從事漁業數에 있어서는 高低所得漁村間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海域別로는 南海岸, 立地類型別로는 脆弱地區型漁村에서 從事漁業數 자체가 적었으며, 西海岸과 脆弱地區型에서는 高低所得漁村間에 차이가 비교적 심했다. 따라서 금후 南海岸漁村에 대하여 漁業多邊化를 우선 지원하되 西海岸과 脆弱地區型 漁村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째, 漁業施設程度로서 우선 漁業基盤施設을 보면 이는 다시 防波堤 護岸, 船着場 및 物揚場으로 나눌 수 있다. 防波堤에 있어서는 西海岸과 脆弱地區型漁村에 우선적으로 施設支援을 하되 東海岸과 都市近郊型 漁村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있어 施設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護岸은 西海岸과 沿岸 村落型 漁村에 우선적으로 施設支援을 하되 南海岸과 都市近郊型 漁村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대한 施設擴充이 시급하다. 船着場은 海域別 우선 지원순위를 정하기 힘들으나 立地類型別로는 沿岸村落型漁村에 우선적으로 施設支援을 하되 東·南海岸과 都市近郊型 漁村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대해 施設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物揚場은 南海岸과 脆弱地區型 漁村에 우선적으로 施設支援을 하

되 특히 南海岸에 있어서는 低所得漁村에 대한 施設擴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漁業施設程度로서 漁船勢力和 動力化를 보면 漁船動力化는 東海岸과 沿岸村落型 漁村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西海岸과 脆弱地區型 및 都市近郊型 漁村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漁船隻數增加를 위하여 西海岸과 都市近郊型 漁村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東海岸과 脆弱地區型 漁村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漁船大型化를 위해서는 南海岸과 脆弱地區型 漁村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東海岸과 都市近郊型 漁村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漁業外所得事業 參與程度로서 먼저 農畜產은 高低所得漁村間으로 구분하기 곤란하나 耕種의 경우 西海岸漁村에, 畜產의 경우 南海岸漁村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漁村工業에 있어서 工場誘致는 西海岸, 脆弱地區型 漁村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南海岸과 都市近郊型 漁村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대해 중점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漁村觀光關聯事業에 있어서는 事業體施設支援을 南海岸과 脆弱地區型 漁村에 대해 우선적으로 하되 東海岸과 都市近郊型 漁村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 漁村에 대해 중점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所得事業支援程度로서 漁村새마을事業을 보면 금후 南海岸 漁村에 대해 우선적으로 事業資金을 增額支援해야 할 것이며, 都市近郊型 漁村에 있어서는 특히 低所得漁村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低所得漁村育成을 위한 重點推進方案

低所得漁村 또는 低所得漁家の 所得増大를 위해서는 어떤 부문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느 地域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하는 가도 중요하나, 실제로 어떤 事業을 어떻게 推進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먼저 어떤 事業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면, 현재 政府(水産廳)와 水協 등 公共團體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事業들이 궁극적으로는 漁家所得増大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이들 事業모두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事業을 막연히 추진한다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 漁家所得構造나 漁業活動과 관련한 諸與件을 분석하여 漁家所得増大에 시급히 요청되는 事業部門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漁場生産性 및 漁業生産性 向上, 價格支持 및 安定, 漁業外所得源開發, 漁業經營費節減 및 資金支援擴大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低所得漁家所得増大를 위한 각종 事業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살펴 보면 기본적으로는 高所得漁家の 그것과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低所得漁家は 高所得漁家に 비해 여러 가지 與件이 불리하므로 事業에 따라 다소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한 所得隔差를 축소해 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低所得漁家を 포함한 일반적인 所得増大方案과 필요한 경우 低所得漁家に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가. 資源造成事業의 擴大

현재 우리 나라의 漁業資源狀況으로 미루어 볼 때, 漁撈漁業은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감이 있다. 즉 <表 5 - 1>에 의해서 年度別 沿近海漁船屯當 生産量變動狀況을 보면 1975 年에 沿近海漁船屯當 4.31 M/T의 生産量

을 올렸으나 1980 年에는 3.61 M/T으로 감소했고 다시 1983 年에는 3.59 M/T을 보여 沿近海漁場에서의 漁業資源이 점차 고갈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沿近海漁業資源은 점차 低級化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沿近海漁業에 있어서의 收支를 악화시킴으로써 沿近海漁家の 所得増大에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表 5-2〉에 의하면 1975 年 沿近海漁業生産量이 1,208 千%이었고 1980 年에 1,370 千%, 1983 年에 1,486 千%의 生産量을 보임으로써 1975 ~ 1983 年間 1.23 배의 生産量増加를 가져 왔다.

表 5 - 1 年度別 沿近海漁船 屯營 生産口

沿 近 海 漁 業	1975	1980	1983	'83/75 (倍)
漁 船 屯 數 (千屯)	280	379	413	1.48
生 産 量 (千%)	1,208	1,370	1,486	1.23
漁船屯營生産量(%/屯)	4.31	3.61	3.59	0.83

資料：農水産部，農林水産統計年報，1984

表 5 - 2 年度別 主要魚種別 生産口

單位：千%

		1975	1980	1983	'83/75 (倍)
沿近海漁業生産量		1,208	1,370	1,486	1.23
高級魚	조 기 류	61	49	29	0.48
	복 어	4	3	2	0.52
	대 하	6	0.8	0.4	0.07
低級魚	쥐 치	81	229	173	2.12
	정 어 리	4	38	140	39.31

資料：農水産部，農林水産統計年報，1984

그러나 비교적 高級魚라 볼 수 있는 조기류에 있어서 1975 年에 61 千 M/T을 생산하였으나 1980 年에는 49 千 M/T, 1983 年에는 29 千 M/T을 생산함으로써 1975 ~ 1983 年間 生産量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역시 高級魚인 복어, 대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低

級魚에 속하는 쥐치生産량은 1975 年에 81千%이었으나, 1980 年에는 무려 229千%이 생산되었으며 1983 年에는 다소 감소한 173千%의 生産量을 보여 1975 ~ 1983 年間 2.1 배의 生産量增加를 보였다. 또한 역시 低級魚인 정어리에 있어서는 1975 年에는 生産量이 4千%에 불과하였으나 1980 年에 38千%, 1983 年에는 무려 140千%으로 生産量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1975 ~ 1983 年間 39.3 배의 生産量增加를 가져왔다.

이러한 沿近海漁業資源의 고갈 및 低級化現象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養殖業을 장려하고 漁場生産性向上을 위해 資源造成事業에도 많은 資金을 투자하였다. 이렇게 資源造成事業은 漁場生産性向上에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 특히 定着性 水産動物의 增殖에 큰 效果를 가져옴으로써 漁家所得増大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資源造成事業은 크게 人工 種苗生産, 受精卵과 稚魚放流 및 人工魚礁施設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금후 이들 각각의 바람직한 推進方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人工種苗生産技術을 획기적으로 開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주요 品目에 대한 人工種苗의 生産技術開發現況을 보면 <表 5 - 3> 과 같이 既開發品目は 전복, 굴 등 8個이고, 基礎試驗技術開發 段階에 있는 品目は 넙치, 복어 등 11個이며, 未開發段階에 있는 品目は 농어, 방어 등 10個로서 아직 人工種苗 生産技術이 매우 낮다. 따라서 금후 현재 既開

表 5 - 3 主要 品目別 人工種苗生産技術水準

既 開 發	基礎試驗技術開發	未 開 發
8 個 品 目	11 個 品 目	10 個 品 目
전복, 굴, 피조개, 새꼬막, 김, 미역, 우렁쉥이, 다시마	넙치, 복어, 돔, 대구, 가리비, 키조개, 보리새우, 대하, 꽃게, 소라, 갯지렁이	농어, 방어, 능성어, 우럭, 문어, 성게, 새조개, 수랑, 비단가리비, 해삼

資料: 水産廳

發段階에 있는 전복, 굴 등 8個 品目에 대해서는 種苗의 優良化 및 量産을 추진하고, 현재 基礎試驗技術開發段階에 있는 넙치, 복어 등 11個 品目에 대해서는 1986 년까지 實用化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未開發

段階에 있는 농어, 방어 등 10個 品目に 대해서는 1986년까지 基礎試驗技術開發을 완료하고 늦어도 1991년까지는 實用化를 이룰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優良種苗의 量産體制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986년까지 種苗培養場施設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야하며 아울러 既存 種苗培養場에 대한 施設을 擴充하여 1984年 현재 5個所에 불과한 種苗培養場을 1991년까지는 현재 규모의 2배 정도로 늘림으로써 種苗의 供給難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人工受精卵 및 稚魚放流事業을 擴大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 人工受精卵 및 연어稚魚의 放流量을 확대하고 현재 대구 0.1%, 연어 2%에 불과한 回歸率을 年次的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稚魚放流事業의 多樣化를 위해서 현재 日本에서 실시하여 어느 정도 效果를 거두고 있는 새우稚魚의 放流를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네째, 人工魚礁施設을 擴大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1983年末 현재 總適地 80千ha의 10.8%인 8,663ha에 既施設되어 있는 것을 1991년까지는 施設완료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事業推進 및 分析의 科學化로 事業의 效果를 높여나가야 한다. 人工魚礁施設은 1971年 이후로 계속해 오고 있는바, 事後效果分析에 있어서 施設 3年後 2.0倍, 6年後 3.4倍 増産될 것으로 나타났다. 금후에도 潛水調査 및 漁民聽取調査를 통해 效果分析機能을 강화해야 할 것이나, 이와 병행하여 人工魚礁施設地域 漁民들의 生産量 報告義務化와 定期的인 實地調査를 통한 지속적인 基礎資料의 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 地域條件에 적합한 高所得 發産品目 開發

그동안 政府에서 養殖業을 유도하고 漁民들도 이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養殖業에 있어서 큰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일부 養殖業種에 있어서 급격히 生産量이 증가함으로써 價格이 정체 또는 하락하여 漁家所得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表 5 - 4>를 통해서 보면 우리 나라 養殖業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김, 미역, 피조개의 경우 價格

이 수년간 정체해 있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김의 경우는 1980년에 kg 당 委販價格이 1,068 원이었으나 1981년에 948 원, 1982년에 937 원, 1983년에 1,159 원을 보임으로써 1980 ~ 1983年間 委販價格이 1.1배 상승하였다. 또 미역에 있어서도 1980년 kg 당 委販價格이 73 원이었으나 1981년에 72 원, 1982년에 76 원, 1983년에 80 원을 보임으로써 1980 ~ 1983年間 委販價格이 1.1배 상승하였다. 한편 피조개에 있어서는 1980년에 kg 당 委販價格이 787 원이었으나, 1981년에 559 원, 1982년에 1,070 원, 1983년에 647 원을 보임으로써 1980 ~ 1983年間 오히려 委販價格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금후 養殖業에 종사하는 漁民들의 所得増大를 위해서는 地域別與件에 적합한 高所得養殖品目을 開發, 擴大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

表 5 - 4 主要養殖品目 委販價格變動

單位: 원 / kg

	1980	1981	1982	1983	'83/80(倍)
김	1,068	948	937	1,159	1.09
미역	73	72	76	80	1.10
피조개	787	559	1,070	647	0.82

資料: 水協中央會, 水産物 系統販賣高統計, 1984

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地域別로 적합한 高所得 養殖品目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研究結果를 참고해 보면 東海岸에서는 전복, 우렁쉥이, 가리비 및 다시마가, 西海岸에서는 대하, 보리새우, 가무락, 백합이, 南海岸에서는 굴, 전복, 소라, 魚類蕃養이 비교적 高所得品目으로서 養殖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品目들은 다음 〈表 5 -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가 價格水準이 높은 高所得品目으로서 이들 品目の 養殖이 擴大됨에 따라 漁家所得増大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들 高所得 養殖品目を 실제로 養殖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支援

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느 정도 養殖이 가능한 適地로 관명되면 新規免許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즉 실제로 이들 高所得品目を 養殖하고자 하나 당해지역에 있어서 養殖경험이 없고 適地判定에 관한 의견차이로 養殖免許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高所得品目の 養殖開發은 금후 漁民所得増大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가급적 養殖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表 5 - 5 主要 高所得 養殖品目の 販賣價格

單位 : 원 / kg

	1980	1981	1982	1983
全魚類平均	292	338	370	431
전복	6,713	7,936	9,525	12,080
대하	3,269	3,113	3,844	8,527
보리새우	616	1,000	784	800
백합	779	785	744	1,153
소라	1,617	1,974	1,698	2,217

資料 : 水協中央會, 水產物系統 販賣高統計, 1984

다음 이들 品目の 養殖을 하는데 필요한 資金供給을 늘려 나감과 동시에 養殖技術指導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이들 高所得 養殖品目は 大量養殖의 經驗이 많지 않으므로 養殖에 필요한 技術蓄積이 부족하여 養殖技術이 일반화된 品目の 養殖에 비해 비교적 危險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品目の 養殖을 원하는 漁村地域에 대해서는 專擔指導員을 배치하여 이러한 危險을 가급적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세제, 전복, 우렁쉥이 등 定着性 水產動物의 養殖에 있어서는 簡易蓄養施設 및 活魚槽施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漁民受取價格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즉 定着性 水產動物은 대개가 活魚狀態로 유통되고 있는데 出荷에 앞서 蓄養을 함으로써 斃死量을 줄일 수 있고 漁民受取價格을 높일 수 있으며, 活魚槽施設이 없어 中間商人에게 헐값으로 販賣하던 것을 活魚槽施設을 지원하여 이를 갖추도록 하면 역시 높은 價格으로의 販賣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

네째, 魚類蓄養의 경우 越冬可能海域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魚類蓄養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越冬可能海域을 확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따라서 금후 이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高所得 養殖品目の 養殖과 관련하여 김, 미역, 바지락, 굴 등 養殖技術이 일반화된 品目에 있어서는 低所得漁村에 있어서 新規免許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이들 品目에 있어서는 生産過剩狀態를 보이고 있어 新規免許가 억제되고 있는데 低所得漁村의 경우 所得源開發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安定性이 있고 고도의 技術을 필요로 하지 않는 品目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免許를 부여함으로써 이들 養殖業에 종사하게 하고, 高所得漁村에 대해서는 高所得 養殖品目の 養殖을 유도해 나가는 형태로 養殖業內에서의 構造改善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漁業施設의 近代化

漁業施設은 漁業活動의 生産手段을 말하는 것으로 漁業施設의 近代化는 漁業生産量增加와 安全操業 및 漁業經營費의 節減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漁業施設 중 가장 중요한 漁船을 보면 <表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3年末 현재 船令 11~15年 漁船이 전체의 14.8%인 13,106隻이고, 船令 16年以上の 漁船이 전체의 8.3%인 7,346隻으로서 船令 11年 이상인 漁船이 전체의 23.1%를 차지하고 있어 老朽漁船이 과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表 5-7>에 의하면 1983年末 總隻數 88,594隻 중 木船이 95.4%인 84,856隻을 차지하고 있고 鋼船이 3.8%인 3,335隻, FRP船이 753隻을 차지하고 있어 漁船의 船質이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漁業施設로서 중요한 漁港施設 중 低所得漁村에서 절실히 요망하고 있는 小規模漁港의 경우 總必要施設 308千m 중 83年末 현재 172千m를 施設함으로써 總必要施設에 대한 既施設의 비율이 55.7%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후 漁業施設을 近代化해 나가야 할 것인데 그 推進方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5 - 6 船齡別 漁船隻數, 1983

單位: 隻

	計	5 年以下	6~10 年	11~15 年	16 年以上
隻 數	88,594	38,822	32,320	13,106	7,346
%	100.0	40.4	36.5	14.8	8.3

資料: 農水產部, 農林水產統計年報, 1984

表 5 - 7 船質別 漁船隻數, 1983

單位: 隻

	計	木 船	網 船	FRP 船
隻 數	88,594	84,856	3,335	753
%	100.0	95.4	3.8	0.8

資料: 農水產部, 農林水產統計年報, 1984

첫째, 현재 漁船隻數를 보면 적은 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新規漁船建造는 老朽漁船代替, 被害漁船復舊, 養殖場 擴大에 필요한 養殖場 管理船을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한다.

둘째, 老朽漁船 代替는 小型漁船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가급적이면 FRP 船 建造를 유도함으로써 船質改善效果도 가져오게 한다. 또 漁船漁業依存度가 높은 漁村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동일한 조건일 때 低所得漁村에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세째, 船質改良擴大를 위하여 木船에 대해서는 FRP 船의 比率을 日本의 1976 年 水準인 20 % 水準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政府의 漁船建造支援單價를 현실화하여 政府支援單價와 民建造單價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째, 엔진, 無電機 등 漁業裝備의 改良支援物量을 확대하고 海域別 與件에 적합한 標準漁船과 燃料節約型 漁船의 開發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燃料節約型 漁船의 開發은 漁撈漁業의 漁業經營費 중 油類費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을 감안할 때 漁家所得増大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오징어自動釣上機, 해태乾燥機 등 漁業機械를 구입하고자 할 때 購入資金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國產機械購入資金을 활용케 함으로써 漁民들이 資金負擔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小規模漁港施設에 있어서는 必要規模에 대한 施設을 될수록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低所得漁村地域의 所得基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 실제 施設에 있어서 指定漁港과 거리가 멀어 指定漁港施設의 이용을 별로 하지 못하고 있는 地域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당해地域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는 附帶施設 즉 漁業生産基盤施設에 대해서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漁業技術開發과 技術指導強化

漁業生産性的 向上을 위해서는 漁業施設을 近代化하는 것 못지 않게 漁業技術水準을 높여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漁業技術水準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漁業技術開發과 漁業技術指導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漁業技術開發機能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養殖業部門에 있어서는 水産振興院 本院 및 支院, 種苗培養場 등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漁業技術開發을 하고 있으나 漁撈漁業部門에 있어서는 水産振興院內의 漁船漁具科, 各業種別 水協 등에서 주로 技術開發을 하고 있고 船舶研究所에서도 일부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때 漁撈漁業部門의 技術開發機能은 다소 미약하다. 따라서 금후 특히 이 漁撈漁業部門에 있어서는 漁業技術 開發機能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漁村指導所를 조기 施設하여 指導能力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83年末 현재 漁村指導所의 數는 8個所에 불과하여 원활한 漁村指導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물론 地域에 따라 水産振興院 本院 및 各支院에서 漁村指導를 담당하고 있으나 農業의 경우 오래 전부터 市郡農村指導所가 설립되어 農村指導를 담당하고 있음에 비추어 금후 漁村指導所도 沿岸市郡當 1個씩 施設을 앞당겨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세째, 漁業技術指導人力을 補強하고 指導豫算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農漁村指導에 있어서 指導人力 및 指導豫算을 비교해 보면 <表 5 -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指導人力으로서 1982 年 기준 指導員 1人當 擔當 家口數를 보면 漁村指導의 경우 687 戶 였으나 農村指導는 244 戶로서 漁村指導가 2.8 배나 많았다. 또 指導員 1人當 擔當 漁民數와 마을數에 있어서도 漁村指導의 경우 農村指導보다 3.0 배 및 2.3 배나 많았다. 한편 指導豫算을 비교해 보면 指導員 1人當 豫算은 漁村指導가 5,162 千원 農村指導가 6,825 千원으로서 漁村指導의 경우 農村指導의 0.8 배에 불과했으나 農漁民 1人當 指導豫算을 비교해 보면 더욱 떨어져 漁村指導의 경우 農村指導의 0.2 배에 불과함으로써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991 年까지는 漁村指導人力 및 指導豫算을 현재의 農村指導水準으로 하기 위해서 指導人力은 현재의 3배, 指導豫算은 현재의 5 배 정도로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表 5 - 8 農漁村 指導人力 및 指導豫算 比較, 1982

		漁村 指導 (A)	農 村 指導 (B)	A / B (倍)
指導 人力	指導員 1人當 擔當			
	- 家 口 數 (戶)	687	244	2.82
	- 農 漁 民 數 (名)	3,561	1,183	3.01
	- 마. 을 數 (個)	14	6	2.33
指導 豫算	指導員 1人當 (千원)	5,162	6,825	0.76
	農漁民 1人當 (원)	1,265	5,767	0.22

資料: 水産廳

네째, 漁村技術指導方法을 개선하고 指導內容을 補完, 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漁村技術指導方法을 보면 講議中心의 지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指導內容 역시 漁村의 立地與件이나 從事漁業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금후 漁村指導는 슬라이드放映을 이용한 視聽覺教育, 現地實習 및 先進地見學을 병행,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指導內容도 立地與件이나 主從事漁業 등을 고려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漁撈漁業型 漁村에서는 魚群探知, 漁具操作方法, 改良漁具와 漁法 소개 등을, 增養殖業型 漁村에서는 種

苗生産, 成育管理, 採捕方法 및 時期 등을 教育內容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 價格支持 및 政府備蓄事業의 擴大

水産物은 生産의 不安定性으로 價格變動이 매우 심한데 그 정도는 農産物보다 더욱 심하다. 뿐만 아니라 農家에 있어서는 農家所得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米穀所得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하여 1970年代 초부터 二重穀價制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農家の 農業所得이 漁家の 漁業所得에 비해 훨씬 많고 그 增加率 또한 높은 결과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漁業生産物에 있어서도 水協에서 주로 鮮魚를 대상으로 價格支持事業을 실시하고 있고, 政府(水産廳)에서는 乾魚物 등을 대상으로 備蓄事業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品目이 얼마되지 않을 뿐 아니라 取扱物量 또한 小量으로서 價格安定 내지 漁民受取價格提高에 큰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있다. 즉 <表 5-9>에 의하면 1983년에 갈치 등 6個 魚種과 기타 몇개 魚種에 대해서 價格支持事業(出荷調節事業 포함)을 실시하였는데 그 取扱比率는 魴치를 제외하고 1.7%~4.7%였다. 그런데 魴치 경우 取扱比率이 20.7%에 이른것은 魴치의 生産量이 워낙 小量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1983년에 政府備蓄事業으로서 鹽藏미역 1個品目に 대해서만 收買했는데 그 收扱比率는 3.7%에 불과했다.

表 5 - 9 1983 年 價格支持事業 및 政府備蓄事業實績 單位: %

				生産量	收 買 量	取扱比率(%)
價格支持 및 出荷調節	갈	치		152,633	7,183	4.7
	고	등	어	122,883	2,678	2.2
	魴	치		4,597	951	20.7
	조	기		29,427	1,101	3.7
	오	징	어	96,773	2,628	2.7
		김		88,042	1,490	1.7
政府備蓄	기	타		-	8,155	-
	鹽	藏	미역	242,963	8,900	3.7

資料: 水産廳

이와 같이 볼때 금후 價格支持事業 및 政府備蓄事業에 있어 取扱品目과 取扱物量을 擴大하고 事業運營을 저해하는 몇가지 사항을 改善함으로써 本事業을 擴大해 나가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事業의 取扱品目を 擴大해야 할 것이다. 금후 取扱對象品目으로서 는 生産量이 비교적 많아 漁民이나 一般消費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價格變動이 심한 魚種은 기본적으로 모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品目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 보면 <表 5 -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1983年 生産量이 10千M/T 이상인 魚種으로서 月別로 價格變動이 특히 심한 品目 중 技術的인 面에 있어서 價格支持事業 및 政府備蓄事業의 取扱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은 참조기 등 15個種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후 이들 事業을 추진함에 있어 참조기 등 15個 魚種의 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漁業生産量은 年別로도 그 차이가 매우 심하므로 반드시 이들 品目만을 중심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신속하게 對象品目を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둘째, 取扱物量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魚種別로 取扱物量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기 어려우나 최소한 生産量の 10%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取扱物量の 확대와 관련하여 民間加工業者 및 備蓄業者에 대해 收買 및 備蓄資金을 増額 供給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生産量이 비교적 많고 價格變動이 심하나 貯藏性이 작은 魚種에 대해서는 加工 및 輸出支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굴, 홍합, 개량조개, 성게 등은 生産量이 비교적 많고 價格變動도 비교적 심하나 活魚狀態로 流通이 되어야 하므로 價格支持 및 政府備蓄事業의 對象品目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금후 이들 品目に 있어서는 加工 및 輸出에 필요한 資金支援 등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表 5 - 10 主要 魚種別 生産口과 價格振幅係數, 1983

單位: %

			生 産 量	月別價格振幅係數 ¹⁾
全	魚	類	1,485,569 ²⁾	0.94
참	조	기	10,133	1.63
갈		치	152,633	1.56
양	미	리	24,048	11.55
멸		치	131,859	1.75
정	어	리	139,763	2.60
전		어	14,119	3.13
밴	땡	이	10,606	1.75
고	등	어	122,883	1.59
전	갱	이	11,539	3.43
삼		치	16,224	1.99
취		치	172,732	1.34
젓	새	우	16,994	3.92
미		역	242,963	6.98
	김		88,042	1.76
	돋		15,849	1.55

1) 月別 平均委販價格의 $\frac{\text{最高價格} - \text{最低價格}}{\text{最低價格}}$

2) 沿近海漁業 生産量임.

바. 農畜産業支援

漁家に 있어서 農畜産業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漁家所得 중에서 漁業所得을 제외하고는 農業所得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漁家に 있어서의 單位耕地面積當 所得이 農家の 44.6 %에 불과하고(表 4 - 3 参照), 다음 <表 5 -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時間當 農業所得도 農家の 60.8 %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금후 農畜産業部門에서의 所得増大 可能性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農畜産業에 있어 금후 推進方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 年 기준 漁家の 平均耕地面積은 1,301 坪이고, 農家は 2,805 坪으로서 漁家 耕地面積의 農家 耕地面積에 대한 비율은 46.4 %에 달하

고 있는 반면, 營農時間은 34.2 %에 불과한데, 漁業의 規模가 작거나 漁業所得源開發이 어려운 低所得漁村에 있어서는 農業部門에 勞動時間을 늘려 耕地利用率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表 5 - 11 漁家の 農業勞動生産性, 1983:

	營農時間 (時間) (A)	農業收入 (千圓) (B)	農業所得 (千圓) (C)	B / A (圓 / 時間)	C / A (圓 / 時間)
漁 家	685	940	692	1,372	1,010
農 家	2,004	4,702	3,331	2,346	1,662
漁家/農家 (%)	34.2	20.0	20.8	58.5	60.8

資料：農水產部, 漁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4.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4.

둘째, 耕種部門에 있어서는 특히 所得作目 중심으로 栽培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漁村地域에 있어서 비교적 유망한 所得作目の 예를 들면 菜蔬類에서는 무우, 마늘, 파 등이며, 特用作物에서는 유채, 참깨, 들깨, 땅콩에 있어서 內陸地域에 비해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果實類 중에서는 사과, 복숭아 등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藥草에 있어서는 종류에 따라 漁村地域에 있어서 內陸地域보다 立地與件이 더 나은 것도 있었다.

세째, 畜産部門에 있어 漁村地域에 있어 더 바람직한 品種을 선택 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內陸地域까지 포함한 道別標準所得率은 〈表 5 - 12〉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漁家로서는 畜産團地 인근 소재 여부, 粗飼料自給能力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에 있어 所得率이 높은 品種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염소, 오리 등도 漁村地域에 다소 유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염소의 경우 가파른 박토에 飼育하기가 가장 적합한 品種이다. 한편 韓牛入殖은 漁業所得源이 적은 低所得漁村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 하되 支援資金을 현실화하고 適期에 방출함으로써 漁家の 所得源多邊化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째, 他機關과의 協助를 강화함으로써 事業의 內實化를 도모해야 한

다. 즉 農村指導所, 農協 및 畜協 등과 협조하여 漁民들도 栽培 및 飼育技術과 販賣時期, 方法 등에 관한 指導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表 5 - 12 主要 畜産物 品種別 標準所得率, 1980 ~ 1982年平均

單位 : %

		한 우	젖 소	돼 지	닭
全 國 平 均		61.6	50.3	56.0	30.0
東 海 岸	강 원	54.5	45.4	59.6	34.9
	경 북	62.3	50.5	41.6	24.1
西 海 岸	경 기	50.8	45.4	58.9	25.6
	충 남	61.6	50.4	54.8	32.0
	전 북	67.5	50.2	54.3	29.0
南 海 岸	전 남	69.5	51.5	59.5	32.6
	경 남	66.3	45.5	50.3	21.4
	제 주	66.8	56.0	60.2	30.9

資料 : 農村振興廳, 農畜産物 標準所得率, 1981 ~ 1983

사. 漁村地域 工場誘致 및 運營支援

漁家에서의 漁業外勞賃과 給料 등이 農家에서의 그것들 보다 훨씬 적으므로 금후 漁村地域에 工場誘致와 既存工場의 運營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하여 금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農工地區 指定時 漁村地域도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즉 農工地區 造成施行의 첫해인 1984 年에 7 個所의 農工地區를 지정했는데 沿岸地域은 한군데도 指定되지 않았다. 따라서 금후 沿岸地域에도 農工地區를 조성하여 漁村地域의 부족한 就業機會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中小企業型的 內需中心 工場誘致가 바람직한데 이것은 農漁村地域에서는 生産基盤施設이 부족하여 大規模工場의 잇점을 찾기 어렵고 農水

産資材 및 農水産加工工場과 같이 農漁業活動에 밀접한 業種의 유치가 더욱 시급하기 때문이다.

세째, 施設 및 運營資金을 支援함과 동시에 大企業과의 系列化를 유도하고 共同販賣센타의 設立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中小企業振興工團, 中小企業協同組合 등과 協助를 강화함으로써 技術指導, 經營指導의 기회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아. 漁村觀光地開發 및 關聯事業 支援

漁村地域은 대부분이 觀光地로서 觀光資源이 매우 풍부한데 이것이 漁開期 漁家所得増大와 직결되기 위해서는 觀光地開發 및 關聯事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바 금후 이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漁村觀光地의 開發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觀光事業 主管部署인 建設部와 協助하여 漁村觀光地開發을 촉진하고,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漁村休養地의 指定 擴大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漁村觀光地를 開發함에 있어서 地域與件에 따라 리저스포즈型 觀光地, 海洋休養地, 海洋産業觀光地, 海中公園 등으로 特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漁村觀光地를 內陸觀光地와 連繫開發하되 일부 지역 集中開發보다는 多數地域을 均衡的으로 開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漁村觀光地를 內陸觀光地와 연계개발하는 것은 年中 營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서비스의 改善을 가져오고, 多數地域을 균형적으로 開發하는 것은 夏節期 交通混雜 등을 事前에 예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地域間 地衡發展에도 도움을 준다.

세째, 各種 規制措置를 제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漁民들이 실제로 觀光關聯事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漁村地域 중에는 觀光地로서 훌륭한 立地與件을 갖추고 있으나 都市計劃法, 自然公園法 軍事施設保護法 등에 묶여 與件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地域이 많은데 夏節期 一定期間 동안 이들 法이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는 한 制限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漁家所得増大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째, 週末漁場造成을 지원하여 觀光收入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農村의 경우 週末農場 또는 觀光農業으로 일부 지역에서 상당한 觀光收入을 올리고 있는데 漁村에서도 共同漁場, 養殖漁場 및 定置漁場을 활용하는 週末漁場을 造成하여 漁家所得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자. 漁業經營費節減對策 강구

漁家の 漁業粗收入은 農家の 農業粗收入 보다 다소 많으나 漁業經營費가 農業經營費보다 훨씬 많으므로써 (1983 年경우 2.1 배) 漁家の 漁業所得이 農家の 農業所得보다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후 漁家所得増大를 위해서는 漁業經營費의 節減 역시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免稅油類 供給不足地域을 완전히 일소해야 할 것이다. 漁業經營費 중 油類費는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아직 免稅油類를 충분히 供給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落島 및 벽지어촌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금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들 地域에 대해서도 충분한 양의 免稅油類를 공급함으로써 漁業經營費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水協 및 漁村契를 통한 漁業用資材의 共同購買을 유도함으로써 漁業經營費를 절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 共同購買資金支援 및 外上販賣物量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차. 資金支盤擴大

漁業의 경우 많은 經營費를 필요로 하나 營漁資金을 비롯한 각종 資金이 충분히 供給되지 못함으로써 漁家の 借入金은 1983 年 경우 2,000 千원을 넘어서고 있다. 즉 <表 5-13>에 의하면 1983 年 漁家の 平均借入金は 2,040 千원으로서 農家の 1.6 배에 달하고 있다. 그 內譯을 구체적으

表 5-13 漁家の 借入金比較, 1983

單位: 千圓

	漁 家 (A)	農 家 (B)	A / B (倍)
計	2,040 (100.0)	1,285 (100.0)	1.59
主 業 資 金	1,263 (61.9)	769 (59.8)	1.64
兼 業 資 金	144 (7.1)	31 (2.4)	4.65
家 計 資 金	574 (28.1)	229 (17.8)	2.51
其 他	59 (2.9)	256 (19.9)	0.23

資料: 農水産部, 漁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84.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84.

로 살펴보면 主業資金으로서 1,263千圓, 兼業資金으로서 144千圓, 家計資金으로서 574千圓, 기타 59千圓으로 되어 있는 바 기타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農家の 1.6 배~4.7 배에 달하고 있다.

漁家に 있어서 이렇게 부족한 資金의 확대공급을 위하여 금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營漁資金의 供給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즉 1983年 현재 營漁資金所要額의 58.9 %에 불과한 供給率을 70 %정도까지 높여나가되 특히 低所得漁村에 대해서는 所要額 전액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84年 12月 현재 103個에 불과한 水協信用店舖를 확대하여 營漁資金財源을 늘려나가야 하며, 全體 水協信用店舖의 온-라인化를 조기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農林水産業者 信用基金에 대한 出捐을 확대하여 水産業者의 貸出을 늘려나가야 한다.

셋째, 새마을事業 資金을 늘려 事業規模를 확대해 나가되 특히 低所得漁村 우선지원 原則의 現實化를 위하여 低所得漁村에 대해서는 事業失敗에 대한 危險分擔體制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및 資料

- 姜奉淳·文八龍, 農家所得의 決定要因 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77.
- 金聖昊, 農外所得決定要因의 巨視的 分析, 農水產部 農業經營研究所,
1972.
- 金成勳, 小農發展의 規制要因에 關한 經濟的 分析,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4.5
- 農協 調查部, 農業所得을 決定하는 要因分析, 1964.
- 李壯鎬 外, 農家經濟調查結果 分析方法의 開發,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 柳炳瑞, 農家所得의 構造와 增大政策方向, 韓國產業研究院, 韓國經濟 第
12卷 第1號, 1984.6
- 崔洋夫 外, 農外所得政策의 基本問題와 새로운 접근,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1.7
- 崔洋夫 外, 2000 年을 向한 農村定住生活圈開發 基本構想, 韓國農村經濟
研究院, 1984.7
- 農協中央會, 複合營農의 展開方向, 1983.2
- 李必桂, 農家所得增進과 그 計測에 關한 研究, 全南大 農大, 1966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漁村所得源開發 促進方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政
策協議會 시리즈 20, 1984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漁村副業開發에 關한 研究, 1983
- 日本 農林漁業基本問題調查會, 日本 農業의 基本問題와 基本對策, 韓國農
村經濟研究院 譯, 1979
- 朴炳勳·孫肩龍, 農·生物統計學, 韓瑞出版, 1982
- 任寅宰, 統計方法, 博英社, 1978.2
- FAO : Fishery development for the future, F.A.O. Depart

ment of Fisheries, 1980

岩切成郎, 漁村構造の經濟分析, 恒星社 厚生閣版, 1960.11

長谷川, 日本漁業の構造, 1981.3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82 ~ 84

, 漁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81 ~ 84

, 農林水産統計年報, 1984

, 漁業生産量統計, 1984 上半期

水産廳, 漁村새마을事業 綜合指針, 1980 ~ 84

,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80 ~ 84

, 1984 年度 水産事業費 內示書

水協中央會, 漁村새마을事業實績 電算資料, 1979 ~ 83

, 漁村契 名簿, 1983.12

, 漁村契 現況 카드, 1983

, 主要水産物 價格便覽, 1983

, 水産物系統販賣高統計, 1984

商工部, 새마을工場 便覽, 1983.3

日本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 漁家經濟調査報告 (漁家の部), 1984.3

日本農林水産省, 漁業自書, 1982 ~ 84

研究報告 91

低所得漁村 育成方案

1984년 12월

발행인 金 榮 鎮

발행처 韓國農村經濟研究院

①③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1979년 5월 25일 제5-10호

전 화 962-7312~5

인쇄처 新新文化印刷株式會社
